

2020 유망수출산업

I. 서론	1
II. 2020 유망수출산업	4
1. 글로벌 메가트렌드	4
2. 유망수출산업의 정의와 방법론	7
3. 소결	15
III. 유망수출산업별 현황	16
1. 제약산업	16
2. 항공기·부품산업	22
3. 가공식품산업	26
4. 화장품산업	29
5. 이차전지산업	34
6. LED산업	43
7.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산업	50
IV. 시사점 및 결론	53
<참고>	56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 요약 >

1. 연구배경

-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둔화·감소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규 유망수출산업 발굴 필요
 -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들이 레드오션에 빠져 들고 있음
 - 당면한 성장한계를 돌파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검토하고, UNCTA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13대 주력수출품목 외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할 유망수출산업을 발굴하고자 함
 - 현재 우리기업의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5~10년 이내에 수출성장이 가능한 유망수출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산업 현황을 분석함

2. 2020 유망수출산업

- 유망수출산업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부합하고, 현재 국내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산업* 중 성장률이 빠르고 5~10년 이내에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

*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 이상

** 2014년 수출품목 순위 11위~13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출액 규모가 80억~150억 달러 수준

< 유망수출산업의 배경이 되는 3대 글로벌 메가트렌드 >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 신흥국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및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한 산업이 유망



전세계적인 인구고령화

-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산업 수요판도를 바꿀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기후변화 이슈

-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관련하여 에너지효율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수요 발생

○ 세계 교역시장의 추이와 한국의 수출품목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후보군 도출

○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제조업 수출품목으로 연구범위 한정

□ 유망수출산업 발굴은 전 세계 교역시장 및 한국 수출품목 추세에 대해 2단계에 걸친 정량적 분석 후, 도출된 품목을 산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 [1단계 필터링] 전 세계 교역시장의 추세는 UNCTAD의 1995~2013년 품목별 수입액 자료를 활용하여 92개 품목* 선별

- 세계 교역규모가 350억 달러 이상이고, 최근 성장률**이 5% 이상으로서 향후 5년 이후까지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

* 선별된 92개 품목은 크게 10개 품목군으로 구분: 각종 식료품, 각종 화학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용 기계류 및 부품,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전기통신기기, 도로주행차량, 석유·가스 및 관련제품, 비식용원료(연료 제외), 섬유제품, 기타 제품군으로 구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즉 2010년~2013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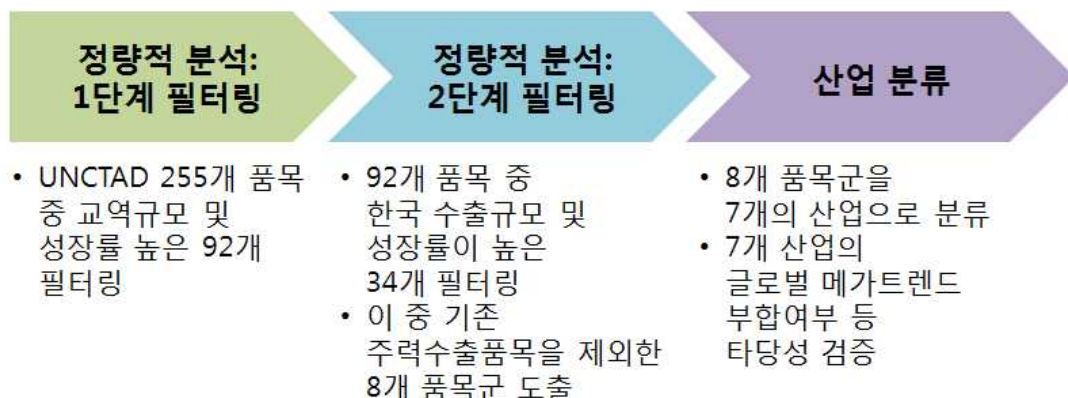
○ [2단계 필터링] 1단계에서 선별된 92개 품목의 한국 수출 실적과 비교·검토하여 8개의 품목 후보군* 도출

- 국내에서 산업기반이 발전적으로 갖추어져 2014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고 최근 성장률**이 5% 이상인 품목

* 8개 품목 후보군: 98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제품 및 조제품’, 541항 ‘의약품 및 약제제품’, 553항 ‘향수 및 화장품, 화장품품(비누제외)’, 713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773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778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792항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813항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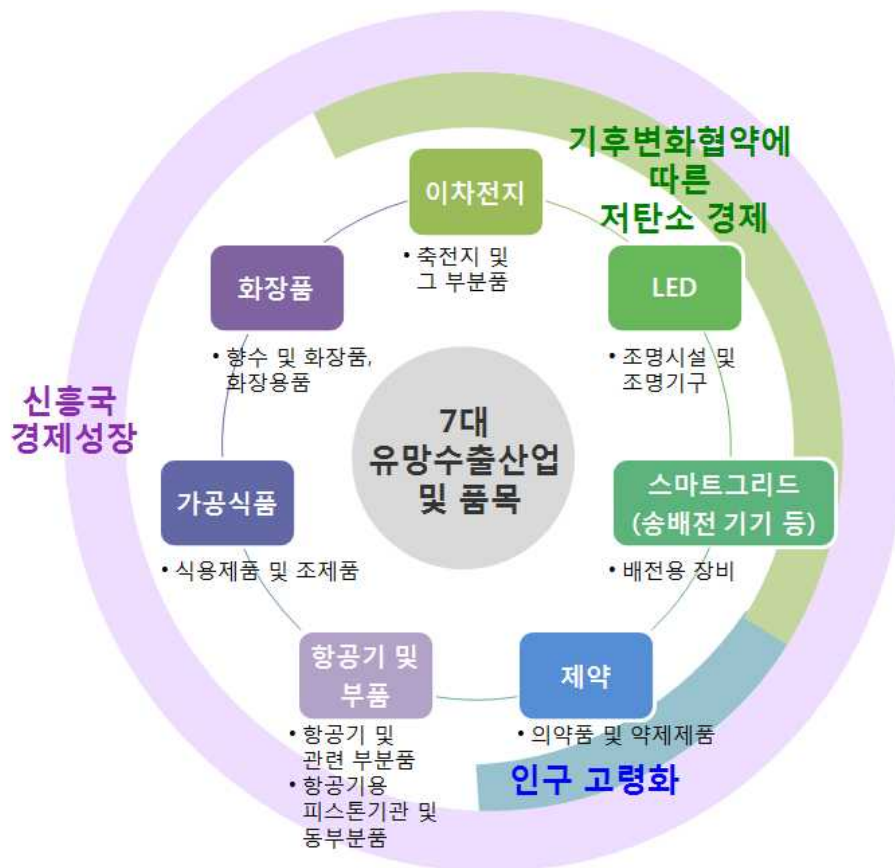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즉 2010년~2014년 성장률

< 분석 프로세스 >



- [산업분류] 정량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8개 품목군을 7개의 유망수출산업으로 분류한 후, 글로벌 메가트렌드 부합 등 타당성을 검토함
- 7개의 유망수출산업: 제약, 항공기 및 부품, 가공식품, 화장품, 이차전지, LED, 송배전 기기 등 스마트그리드
- 7개 산업은 앞서 살펴본 3대 글로벌 메가트렌드인 신흥국 경제 성장, 인구고령화, 기후변화이슈 등에 부합하고 있음

< 7대 유망수출산업 및 품목 >



3. 유망수출산업별 현황

□ 제약: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기반 확보

- 세계 의약품 시장은 파머징*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 지속

*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BRICs 국가와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7개의 제약 산업 신흥시장을 뜻하며, 전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을 주도

- 한국 제약산업은 국내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으로 선진기업 대비 수출 경쟁력이 취약하나 최근 수출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음

□ 항공기·부품: 독자모델 생산이 가능한 기술력 확보

- 전 세계 항공기시장은 민항기 시장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 항공산업은 기반이 약한 수준이지만 비교적 빠르게 성장 중에 있으며, 한국 항공기산업은 고유기종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기술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 시 시장확대가 가능함

□ 가공식품: 수출 초기 단계이나,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가공식품 시장은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중국을 위시한 아태 지역 시장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아직까지 시장점유율이 낮고 초기 단계이나 정부의 수출확대 의지와 일부 기술에서 경쟁력 확보 등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화장품: 아시아시장을 바탕으로 국가 대표 브랜드로 성장 중

- 세계시장 규모는 소득수준 향상, 소비층 확산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은 한류 및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급증

□ 이차전지: 전기차, 에너지저장 분야로 영역 확대

-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그동안 소형 IT 기기용 수요가 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향후에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세계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을 놓고 한·중·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우리나라 이차전지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등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기대가 큰 산업

□ LED: 뛰어난 융복합 기술력으로 신시장 창출 가능

- LED는 장수명, 저전력, 환경친화적 장점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LED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명시장에서 차세대 조명기술로 LED가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LED 생산역량과 자동차, 선박 등 LED 주요 응용분야에 산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 LED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

□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 발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

- 선진국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수요, 개도국의 발전소 건설 증가, 스마트그리드의 확대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 한국기업의 송배전 기기 수출은 고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송배전 기기 80~90% 수준, 스마트그리드 90.3% 등 향후 높은 성장성 기대

4. 시사점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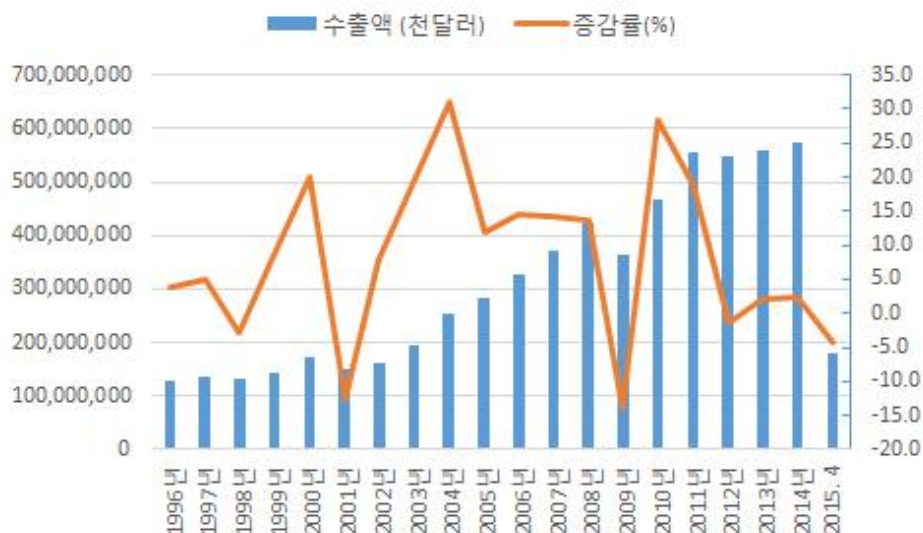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치산업, 즉 조선, 철강, 중화학, 기계장치 등의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
-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13대 주력수출품목 외에 신규 7대 유망수출산업을 육성,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의 품목을 2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하이테크를 접목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류 등을 활용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
 -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부품, LED, 이차전지 등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

I. 서론

□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성장률은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하던 한국의 수출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고 심지어 감소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IT 버블 붕괴 이후 중국의 WTO 가입 등의 효과가 나타난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음
- 금융위기 이후 2010~2011년은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성장률이 두 자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3% 미만 또는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액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 한국의 13대 주력품목의 최근 양상을 살펴보면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전체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13대 주력품목 시장의 대부분이 중국에 의한 공급과잉 상황이거나 혹은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13대 주력수출품목 수출액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은 %

품목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선박류 (증가율)	49,112 (8.8)	56,588 (15.2)	39,753 (△29.8)	37,168 (△6.5)	39,886 (7.3)	18,490 (22.7)
무선통신기기 (증가율)	27,621 (△10.9)	27,325 (△1.1)	22,751 (△16.7)	27,578 (21.2)	29,573 (7.2)	12,310 (△0.9)
일반기계 (증가율)	36,104 (34.5)	45,817 (26.9)	47,914 (4.6)	46,415 (△3.1)	48,403 (4.3)	20,368 (0.7)
석유화학 (증가율)	35,715 (30.0)	45,587 (27.6)	45,882 (0.6)	48,377 (5.4)	48,214 (△0.3)	15,930 (△20.4)
철강제품 (증가율)	28,875 (25.4)	38,484 (33.3)	36,971 (△3.9)	32,497 (△12.1)	35,543 (9.4)	13,295 (△8.5)
반도체 (증가율)	50,707 (63.4)	50,146 (△1.1)	50,430 (0.6)	57,143 (13.3)	62,647 (9.6)	25,713 (6.7)
자동차 (증가율)	35,411 (39.4)	45,312 (28.0)	47,201 (4.2)	48,635 (3.0)	48,924 (0.6)	19,552 (△8.6)
석유제품 (증가율)	31,531 (37.3)	51,600 (63.7)	56,098 (8.7)	52,787 (△5.9)	50,784 (△3.8)	13,406 (△40.0)
평판디스플레이 (증가율)	29,905 (27.6)	27,809 (△7.0)	28,160 (1.3)	25,971 (△7.8)	25,810 (△5.8)	9,544 (△9.7)
섬유류 (증가율)	13,899 (19.5)	15,932 (14.6)	15,595 (△2.1)	15,955 (2.3)	15,936 (△0.1)	5,938 (△10.7)
가전 (증가율)	12,816 (27.4)	13,328 (4.0)	12,635 (△5.2)	14,884 (17.8)	14,839 (△0.3)	5,117 (△18.8)
자동차부품 (증가율)	18,963 (61.9)	23,088 (21.8)	24,610 (6.6)	26,079 (6.0)	26,635 (2.1)	10,621 (△5.9)
컴퓨터 (증가율)	9,116 (13.8)	9,156 (0.4)	8,462 (△7.6)	7,763 (△8.3)	7,714 (△0.6)	3,404 (11.5)
13대 품목 전체 (증가율)	379,775 (27.7)	450,172 (18.5)	436,462 (△3.0)	441,252 (1.1)	454,908 (2.8)	173,688 (△7.6)
비중	81.4	81.1	79.7	78.8	79.4	78.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과거 80%를 상회하던 13대 품목의 비중도 금년 5월까지 집계에서는 78%대로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이들 주력 품목이 수출 둔화추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됨

□ 13대 주력수출품목 외에 새로운 유망수출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들이 레드오션에 빠져 들고 있음
- 당면한 성장한계를 돌파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차세대 유망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
 - 수출증진 방안으로는 주력산업의 산업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력 차별화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음
 - 또 다른 방안은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주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임

□ 이에 글로벌 메가트렌드¹⁾와 부합하며, 국내 산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5~10년 이내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유망수출산업을 발굴하고자 함

- 즉 현재 국내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산업 중 5~10년 이내 수출액이 현재 주력품목 10위권 수준인 1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발굴
 - 참고로 2014년 13대 주력수출품목 중 상위 11위~13위에 해당하는 섬유류(159억 달러), 가전(148억 달러), 컴퓨터(77억 달러)의 수출액 규모가 100억 달러 내외 수준
- 발굴에 앞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검토하고, UNCTA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13대 주력수출품목 외에 유망수출산업을 도출함
- 도출된 유망수출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산업 현황을 분석함

1)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대의 흐름

II. 2020 유망수출산업

1. 글로벌 메가트렌드²⁾

가. 신흥시장의 경제성장

□ 글로벌시장에서 신흥시장이 세계 수요의 중심축으로 등장

-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글로벌 경제에서 신흥시장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동안의 선진국 중심의 수요확대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미래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
 - 2013년 세계 GDP 223조 달러 중 신흥시장 비중은 38%에 불과하나 2030년 68%까지 확대될 전망
- 현재 저소득 신흥국 인구는 40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세계 소비의 한 축으로 부상할 전망
 - 소득수준으로 세계 소비시장을 나뉘보면 2만 달러 이상 선진국 시장 2억 명, 3천~2만 달러 소득의 개도국 시장 20억 명, 3천달러 미만의 저소득 수요시장은 40억 명
 - 개도국 경제발전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수요 성장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세계 수요패러다임 변화의 큰 축으로 성장할 전망

□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와 경제성장과 동반한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산업이 유망

- 신흥 소비계층의 절반 이상이 중국 및 인도 등 아시아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전략 지역으로써 아시아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2014년 7.8%에서 2015~2020년 7.5%로 여전히 높게 지속될 전망
 - 소비 시장규모는 아시아가 3.47조 달러로 가장 크고,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의 순서임
 - 국가별 시장규모는 중국(1,611억 달러), 인도 (1,513억 달러), 방글라데시(1,423억 달러), 멕시코(1,051억 달러),) 순

2)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의 '글로벌 트렌드 2030' 미래예측 보고서, 이코노미스트의 '무대책의 비용-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가치의 인식(The cost of inaction: Recognizing the value at risk from climate change)' 보고서 등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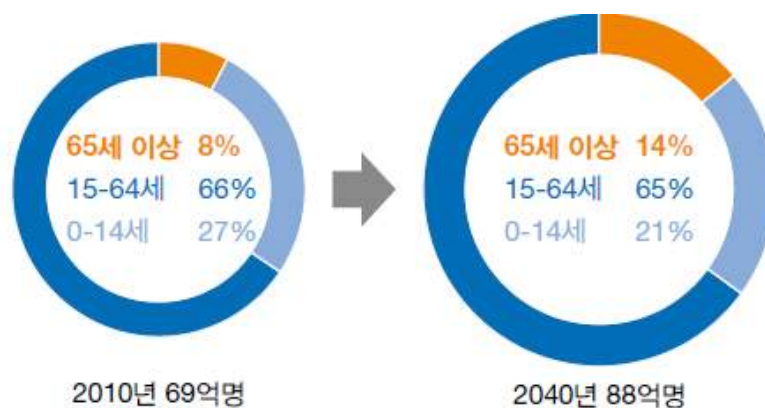
- 수요 중심축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 운송 분야와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 전기, 및 통신 등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
- 2015년 기준 개도국 인프라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2020년 2.5조 규모로 성장해 전 세계 수요의 약 68%를 차지할 전망

나.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산업 수요 판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로 등장

- 세계 인구는 69억명(2010)에서 88억명(204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 평균 출산율은 2.56에서 2.10으로 하락하는 반면, 65세 인구는 7.6%에서 14.2%로 상승
- 선진국의 세계 인구 대비 비중은 18%에서 15%로 하락하고, 65세 인구 비중은 16%에서 2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도 2000년에 7.2%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상승할 전망

< 세계 인구구조 변화 >



자료 : UN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만들어 낼 전망

- 고령화는 복지체제, 고용 · 산업구조 개편, 금융시스템 개선, 세계 정치 · 경제 질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생산인력의 고령화는 IT산업과 같이 기술 및 숙련의 발전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하지만 헬스케어, 제약, 금융 등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산업군으로 부상할 전망

다. 기후변화 이슈

□ 기후변화 이슈는 에너지패러다임 변화 및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킬 전망

-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화석연료를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으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경우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상재해 증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
- 기후변화 협약은 이러한 지구의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들의 비용증가는 불가피
- 교토체제의 경우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비용 증가 이유로 불참하여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는 산업 전반에 더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예정
 -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 청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 예정
 - 중국은 국내 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5년 대비 60%~65% 감축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결정함
- 2020년 新 기후변화체제 등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것이며,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배출권 거래 등 탄소 비즈니스 등 다양한 산업 수요가 발생할 전망

※ 미국 NIC의 ‘글로벌 트렌드 2030’의 4대 메가트렌드

1. **개인 권한 강화:** 경제의 글로벌화 확대,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 새로운 통신·제조기술의 폭넓은 이용 가능성 등으로 개인의 권한 확대
2. **권력의 분산:** 국가 간 권력의 분산은 세계 패권의 아시아 및 비서구 세계로의 이동을 촉진
3. **인구학적 패턴:** 인구 고령화, 국가 간 인구이동, 도시인구 증가는 경제, 정치, 국제 관계에 있어 새로운 문제들 야기
4. **식량, 물, 에너지 수요 증가:** 중산층 확대와 도시인구 팽창은 식량, 물, 에너지 등 필수자원에 대한 압박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2. 유망수출산업의 정의와 방법론

가. 정의 및 기준

□ 유망수출산업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유망수출산업을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5~10년 이내에 100억 달러 이상³⁾의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특히, 국내에 해당 품목을 개발, 생산, 해외판매 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나 혹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으로 한정함

□ 유망수출산업의 기준

- (세계) 교역시장이 크고, 최근 교역시장의 성장률이 높아 향후 5년 이후까지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
- (국내) 현재 산업 기반이 발전적으로 갖추어져 한국기업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⁴⁾
 - 기반이 거의 없는 초기 산업은 사업 운영 상 제반 위험이 큼
 - 최근 수출성장률이 높아 국내 기업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군)

□ 본 연구의 유망 수출산업은 1차적으로 제조업에 한정

- 서비스 수출, 해외건설업, 해외투자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등 수출에 준하는 다양한 기업활동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제조업 수출품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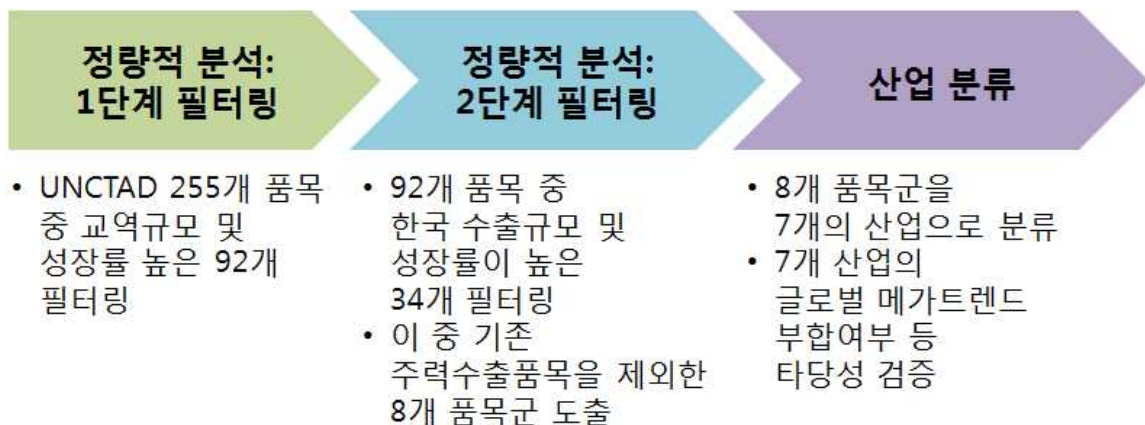
3) 2014년 수출품목 상위 11위~13위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출액 규모가 80억~120억 달러 수준

4) 제품과 부품, 기자재 등을 포함하며 기술과 시장의 특성이 유사한 제품군으로서 수출품목 분류코드에 있어서 상위코드로 묶일 수 있는 제품군을 한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음

나. 방법론 및 과정

- 유망수출산업 발굴은 전 세계 교역시장 및 우리나라 수출품목 추세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도출된 품목의 산업으로의 분류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
 - 전 세계 교역시장의 추세는 UNCTAD의 1995~2013년 품목별 수입액 자료를 활용함
 - 세계 교역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해당 수출품목 실적과 비교·검토하고 후보군을 도출
 - 정량적 분석에 의해 도출된 품목을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글로벌 메가트렌드 부합 등 타당성 검토 후 최종 유망수출산업으로 도출

< 분석 프로세스 >



(1) 정량적 분석

- [1단계 필터링] 세계 교역시장 데이터를 활용,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92개의 품목 선별
 - UNCTAD의 “Merchandise trade matrix - detailed products, imports in thousands of dollars, annual, 1995-2013” 데이터를 검토
 - 데이터는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code 3단위로 분류된 255개 품목의 연간 교역실적 통계를 보여줌

- SITC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SITC 코드 분류 체계 >

대분류 코드	품 목
0	식료품 및 산 동물
1	음료 및 담배
2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4	동식물성의 유지 및 왁스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 및 관련 제품
6	재료별 제조제품
7	기계 및 수송장비
8	잡품
9	본 SITC에서 달리 분류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자료 : UNCTAD

- 255개의 품목을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 교역액(이하 “교역액”)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3년간(2010~2013)의 연평균 교역 성장
률(이하 “성장률”) 등 2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눔
- 2013년 교역액은 시장의 규모를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교역 성장률은 시장의 성장속도를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함
- 255개 데이터를 교역액의 大小와 성장률의 高低를 기준으로 분류
- 교역액을 X축으로 하고 성장률을 Y축으로 하여 X축의 원점을 350억
달러로, Y축의 원점을 연 5%로 그래프를 그림
- 이때 350억 달러는 255개 데이터의 중앙값이고, 성장률 5%는
2011~2013 세계 명목경제성장률의 평균치인 3.3%보다 소폭 높은 수준
으로 결정함
- 그래프의 1사분면 (교역액 大, 성장률 高)에 92개 품목, 2사분면 (교역액 小, 성
장률 高)에 82개 품목, 3사분면 (교역액 小, 성장률 低)에 45개 품목, 4사분
면 (교역액 大, 성장률 低)에 36개 품목이 4개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짐

- 4개 그룹 중 교역액이 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높은 1사분면의 92개 품목군을 2단계 필터링 대상으로 함
- 92개 품목은 크게 10개의 품목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각종 식료품, 각종 화학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용 기계류 및 부품,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전기통신기기, 도로주행차량, 석유·가스 및 관련제품, 비식용원료(연료 제외), 섬유제품, 기타 제품군으로 구성

< 1차 필터링 결과 >



품목군	품목수
각종 식료품과 음료	13
각종 화학제품(석유화학제품 등)	13
산업용 기계류 및 부품	13
금속 및 비금속 광물	8
전기통신기기	5
도로주행차량	5
석유·가스 및 관련제품	5
비식용 원료(연료 제외)	5
섬유제품	4
기타제품 (의약품, 화장품, 여행용품, 시계, 각종 광학기기, 각종 잡품 등)	21
총	92 ^주

주: 92개의 품목별 교역액 및 성장률은 <참고1> UNCTAD 1차 필터링 92개 품목

□ [2단계 필터링] 92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수출규모가 크고 최근 성장률이 높은 품목 중 유망수출 품목 후보군 8개 도출

- UNCTAD 데이터의 92개 후보 품목들은 교역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의 성장률이 빠른 품목들임
- 92개 후보 품목의 2014년 한국 수출액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2010~2014)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 등 2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눔
 - 92개 데이터를 수출액의 大小와 수출 성장률의 高低를 기준으로 분류
 - 수출액을 X축으로 하고 수출 성장률을 Y축으로 하여 X축의 원점을 10억 달러로, Y축의 원점을 연 5%로 그래프를 그림
 - 그래프의 1사분면(수출액 大, 수출성장률 高)에 33개 품목, 2사분면(수출액 小, 수출성장률 高)에 28개 품목, 3사분면(수출액 小, 수출성장률 低)에 15개 품목, 4사분면(수출액 大, 수출성장률 低)에 16개 품목이 4개 그룹으로 각각 나누어짐
- 이 중 1사분면에 있는 33개 품목과 2사분면의 1개 품목(수출액 9.54억 달러) 중 한국의 기존 주력 13대 수출품목을 제외한 결과 8개 품목을 유망수출품목으로 도출함
- 다음 표는 2차 필터링 결과 34개 품목을 나타내며 음영 표시한 항목이 도출된 8개의 품목임

< 한국 수출데이터 기준으로 2차 필터링한 34개 품목^주 >

소분류 코드	품목명	2014 한국 수출액 (천달러)	연평균 증가율 (2010~2014)	유망수출 vs. 기존주력
541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	954,095	7.0%	유망수출
813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1,149,259	59.8%	유망수출
09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제품 및 조제품	1,214,699	11.8%	유망수출

748	전동축 등 철강부품	1,337,659	10.6%	기존 주력
742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1,446,139	12.5%	기존 주력
792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1,660,307	7.7%	유망수출
731	금속 또는 기타재료의 절삭방식에 의한 가공공작기계	1,684,133	9.3%	기존 주력
747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배트 등에 사용하는 탭	1,798,013	12.1%	기존 주력
533	안료,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1,852,541	12.8%	기존 주력
512	알콜,페놀-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	1,869,740	8.6%	기존 주력
553	향수 및 화장품,화장용품(비누제외)	1,893,926	23.5%	유망수출
695	수공구 및 기계용공구	2,045,541	12.6%	기존 주력
744	기계식 취급장치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2,352,602	10.4%	기존 주력
653	인조섬유직물	2,746,259	5.2%	기존 주력
69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구조물 및 구조물	2,976,941	25.6%	기존 주력
893	달리 명시되지 않은 플라스틱제의 물품	2,983,206	25.7%	기존 주력
33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잔여 석유생산물 및 관련물질	3,239,141	10.0%	기존 주력
69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 제품	3,853,419	9.0%	기존 주력
743	액체용 이외의 펌프,공기 또는 개스입축기 및 선풍기	3,935,886	12.9%	기존 주력
7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3,995,196	6.0%	유망수출
88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용품	4,156,970	7.0%	기존 주력
57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4,694,379	9.5%	기존 주력
741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 부분품	4,872,198	9.4%	기존 주력
679	철강의 튜브,파이프 및 중공프로파일과 튜브	5,248,730	13.4%	기존 주력
7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5,315,344	6.1%	유망수출
582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	5,698,282	10.0%	기존 주력
575	기타 플라스틱(일차제품의 것)	8,417,539	11.3%	기존 주력
77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	12,432,807	18.6%	기존 주력
51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	14,309,718	17.2%	기존 주력
77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리튬이온축전지)	17,423,946 (2,268,057)	14.1%	유망수출
784	722,781,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24,314,248	8.0%	기존 주력

87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의료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기기	24,932,155	8.6%	기존 주력
781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44,821,134	9.0%	기존 주력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48,817,565	12.8%	기존 주력

주: 1사분면에 있는 33개 품목과 2사분면의 1개 품목(수출액 9.54억 달러) 등 34개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산업 분류

□ 도출된 8개 품목군을 생산하는 산업별로 분류

- 품목 대신 산업으로 분류한 이유는 정책적 지원,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고 경쟁력 제고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업활동의 집합체인 산업이기 때문임

□ 분류 결과, 다음과 같이 7개의 유망수출산업으로 구분

- 제약
 - 541항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이 제약산업에 포함됨
 - 하부 품목으로는 프로비타민⁵⁾ 및 비타민과 그 유도체,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2> 표와 같음
- 항공기 및 부품 산업
 - 792항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의 하부 품목에는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 등과 그 부분품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3> 표와 같음
 - 713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중 항공기용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세분류 코드 7131)이 동 산업에 포함되며 관련 세분류 품목은 <참고4> 표와 같음
- 가공식품

5) 자연계에 있을 때는 비타민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어떤 종류의 처리 또는 동물체내에서 대사되면 비타민 효과가 생기는 물질의 총칭

- 98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제품 및 조제품'이 가공식품군에 포함됨
- 하부 품목으로는 균질화된 조제식료품, 소스와 식초 대용물, 수프류, 베이킹 파우더 등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5> 표와 같음
- 화장품 산업
 - 553항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비누제외)'이 화장품산업에 포함됨
 - 하부 품목으로는 향수 및 화장수, 기초화장품 제품류, 메이크업용 제품류, 두 발용 제품류 등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6> 표와 같음
- 이차전지 산업
 - 778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품목의 수출액 174억 달러 중 약 50억 달러를 축전지(세분류코드 7781)가 차지하고 있으며 축전지 세분류 품목은 <참고7> 표와 같음
 - 축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차전지(HS 코드: 850760)의 2014년 한국 수출액이 22.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차전지만으로도 유망수출산업의 최소 수출액 요건을 충족함
- LED 산업
 - 813항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의 하부 품목에는 전기식 조명기구, 자체 전원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등, 조명용 사인 등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8> 표와 같음
 - 각국 정부의 백열등 사용 규제 등으로 특히 LED가 차세대 조명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송배전 기기 등) 산업
 - 773항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는 송배전 기기의 부품, 장비들로 향후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전력망 즉 스마트그리드 산업과 관련이 있음
 - 하부 품목에는 권선용전선⁶⁾, 전기도체, 광섬유 케이블, 애자⁷⁾ 등 전기절연용 기기 등이 있으며 세분류 품목은 <참고9> 표와 같음

6) 구리선이나 알루미늄선에 절연물질을 코팅한 전선으로서 발전기 등에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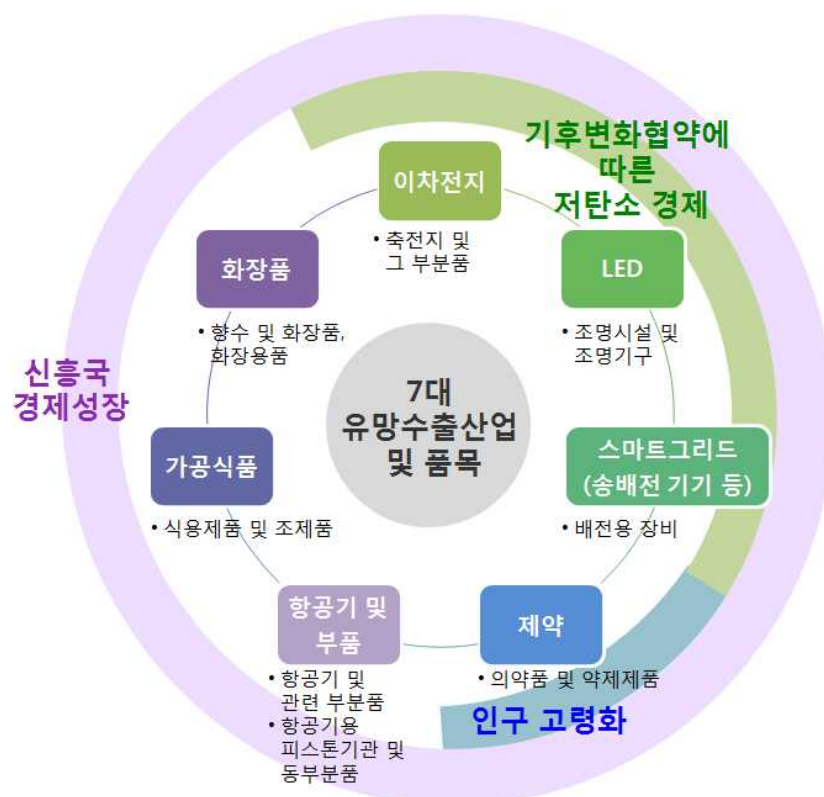
7) 전기도체(電氣導體)를 절연하고 지지(支持)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체절연물

3. 소결

□ 분류된 7개의 산업이 앞서 살펴본 3대 글로벌 메가트렌드 등에 잘 부합하고 있는바, 최종적으로 7대 2020 유망수출산업으로 도출

- 7개 산업 모두 직간접적으로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 및 인프라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음
 - 신흥국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가공식품, 화장품 및 운송 분야(항공기 및 부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약품 시장도 성장
 - 송배전 기기, 조명기기는 신흥국 전력수요 증가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시장 성장
 - 현재 주로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함
- 제약산업의 성장은 신흥국 경제성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이기도 함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 분야가 중요해짐에 따라 조명기기 중에서도 LED, 스마트그리드와 연관되는 송배전 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차전지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

< 7대 유망수출산업 및 품목 >



III. 유망수출산업별 현황

1. 제약산업

가. 세계 시장

□ 세계 의약품 시장은 파머징⁸⁾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 지속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0년대 후반까지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어 2013년에는 전년대비 3.2% 상승한 9,893억 달러 기록
- 의약품 시장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제약 신흥국가 즉 파머징 국가가 최근 5년간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의 성장세 주도

<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2004~2013)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시장 (불변가격)	601.1	645.5	691.0	739.5	786.7	842.6	889.4	936.9	959.0	989.3
전년대비 성장률	7.8	7.4	7.1	7.0	6.4	7.1	5.5	5.3	2.4	3.2

자료: 2014년 제약산업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3년 국가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제약시장은 선진국 시장 63%, 파머징 국가 시장 24.6%로 구성
-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파머징 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기존 선진국 중심의 세계 제약시장의 판도가 점차 바뀔 전망
- 향후 5년간(2014~2018년) 세계 제약시장 성장률은 4~7%로 예상되어 2018년 시장규모는 1조 3,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

8)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BRICs 국가와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17개의 제약 산업 신흥시장을 뜻하며, 전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을 주도

- 특히 파머징 국가들은 동기간 8~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8년 약 3,700억 달러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2013) >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비중	CAGR ('09~'13)	2018(E)	
					CAGR ('14~'18)
세계 시장(합계)	989.3	100.0	5.2	1,280~1,310	4~7%
선진국(Developed country)	623.6	63.0	3.1	766~796	3~6%
미국	340.0	34.4	3.6	450~480	5~8%
EU 5	156.3	15.8	2.2	157~185	1~4%
독일	45.9	4.6	3.9	48~58	2~5%
프랑스	37.1	3.8	-0.7	30~40	-2~1%
이탈리아	27.9	2.8	2.5	28~36	2~5%
영국	24.6	2.5	5.5	27~37	4~7%
스페인	20.7	2.1	0.3	20~26	-1~2%
일본	94.1	9.5	3.2	94~120	1~4%
캐나다	21.4	2.2	1.4	23~33	3~6%
한국	11.7	1.2	4.2	12~19	2~5%
파머징(Pharmerging)	242.9	24.6	13.6	358~388	8~11%
중국	97.7	9.9	19.0	155~185	10~13%
Tier2	62.4	6.3	14.4	88~98	9~12%
브라질	30.6	3.1	15.2	36~46	9~12%
러시아	17.7	1.8	12.8	20~30	7~10%
인도	14.1	1.4	14.9	21~31	9~12%
Tier3	82.8	8.4	8.1	95~125	5~8%
그 외 기타	122.9	12.4	3.3	124~154	2~5%

주: 1) (E)는 예상치, 2014년 2분기 평균환율 기준

2) Tier 3 17개국은 멕시코, 터키, 베네수엘라, 폴란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이집트, 루마니아, 알제리, 베트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자료: IMS Health(2014. 9월), 2014년 제약산업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 UNCTAD 통계에 의하면 의약품 교역시장은 2013년 기준 1,803억 달러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9.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18개가 미국, 유럽의 선진기업들로 구성되는 등 일부 선진국이 시장 주도

- 의약품 제조산업은 신약개발 연구에서부터 원료 및 완제 의약품

생산·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며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 부가가치 산업임

- 2013년 글로벌 제약기업 중 판매 1위 기업은 스위스 Novartis로 505억 7,600만 달러 기록
- 그 뒤를 이어 미국 Pfizer(443억 3,000만 달러)와 프랑스 Sanofi(381억 8,100만 달러)가 2, 3위를 차지함

< 세계 상위 20대 기업 >

(단위: 백만 달러, %)

2013 RANK	기업명	국가	2012	2013	전년대비 성장률
	Global Market		857,710	874,611	4.5
1	Novartis	스위스	50,521	50,576	1.9
2	Pfizer	미국	46,707	44,330	-2.6
3	Sanofi	프랑스	38,531	38,181	1.4
4	Merck & Co	미국	39,891	36,350	-7.0
5	Roche	스위스	34,958	36,146	5.3
6	GlaxoSmithKline	영국	32,736	32,544	1.5
7	Johnson & Johnson	미국	27,717	30,784	12.2
8	AstraZeneca	영국	31,704	30,257	-2.9
9	Teva	이스라엘	24,762	24,258	-1.8
10	Lilly	미국	21,583	23,045	8.4
11	Amgen	미국	17,103	18,621	8.7
12	Abbvie	미국	17,881	18,150	2.0
13	Boehringer Ingelheim	독일	16,889	17,375	5.7
14	Bayer	미국	16,431	17,276	8.3
15	Novo Nordisk	덴마크	12,576	14,300	15.0
16	Takeda	일본	15,909	13,399	-9.5
17	Actavis	미국	12,375	12,742	2.9
18	Mylan	미국	10,325	11,087	7.4
19	Bristol-Myers Squibb	미국	12,756	11,023	-12.9
20	Gilead Sciences	미국	9,540	11,011	14.8

주: 시장규모(판매액)는 분기별 환율 적용

자료: IMS Health MIDAS(2013.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인용

나. 국내 산업

- 한국 제약산업은 국내생산에 기반을 둔 내수 완제품 중심이나 최근 수출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여 2013년 11.7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2%차지

-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음
- 2013년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약 16.2조원 규모
- 우리나라 제약산업 생산액은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5.9%로 성장해옴
- 한편 제약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13년 35.65%로 제조업 평균 21.25% 대비 14.4%p 높게 나타남

< 한국 의약품 생산액 추이(2004~2013)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수준 대비 취약한 경쟁력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약개발 투자보다는 원료합성을 통한 최종 완제 의약품 생산이 대부분이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 생산, 판매에 치중
- 2013년 말 기준 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922개이며 이 중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수는 666개임
- 대기업(3,000억 원 이상)은 10여개이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2.3조(21.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2013년 중 수출성장률은 연평균 6.9%
- 최근의 수출규모 증가는 내수시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판로를 확대한 데 기인
- 수출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여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제약산업 수출입 규모 추이 >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9~’13)
수출	1,772,242	1,770,059	1,943,493	2,309,534	2,318,522	0.4	6.9
수입	4,953,881	5,108,911	5,447,053	5,728,874	5,155,829	-10.0	1.0
무역수지	-3,181,639	-3,338,851	-3,503,560	-3,419,340	-2,837,308	-17.0	-2.8

주: 1) 의약품의 범위는 완제, 마약, 한의마약, 향정신성, 원료의약품

2) 의약품 수출입액은 한국은행 원/달러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제약협회(201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20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재인용

- 국내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 시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다. 성장 가능성

□ 선진기업 대비 아직 수출 경쟁력이 취약하나, 최근 바이오 시밀러 부분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제약산업은 과학기술과 전문인력이 강점인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신약개발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⁹⁾되나 신약개발 성공 시 20년간의 독점 특허기간을 누리는 등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

9) 글로벌 신약개발 시 평균 1조~2조 원, 평균 10년 소요(성공률은 1/5,000)

- R&D 투자가 여전히 선진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그동안 여러 제약기업에서 진행해 온 연구개발성과로서 신약개발 결과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2014년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9,501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0.3%p 감소한 7.4%
 -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셀트리온(60.9%), 종근당(49.7%), 바이오니아(37.0%), 한미약품(22.5%) 등 18개 기업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출 상위 10개 기업 8.2%, 대기업 7.9%, 중소기업 4.6%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인 15.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 FDA에 25개 제품이 임상 진행 또는 완료·허가 단계에 진입¹⁰⁾, EU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13. 7월, 셀트리온 렘시마주) 허가의견을 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있음
- 다국적 제약기업과 공동 수출계약, 라이선스아웃¹¹⁾ 등을 통해 신약 및 개량신약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향후 수출 증가 기대
- 2014년 상장 제약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1.8조원이며, 매출대비 수출비중은 14.3%로 최근 5년래 가장 높음
- 특히 최근 수년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개발 및 경쟁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음
-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3년 7월 발표)등을 수립하는 등 제약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
- 향후 정부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의 지원정책 수요조사 파악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2013년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03년 팩티브 1건에 불과했음

11) 특정 약을 제조하는 기술, 비법을 타 회사에 전수하고 해당국가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계약

2. 항공기·부품산업

가. 세계 시장

□ 전 세계 항공기시장은 민항기 시장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의하면 Forecast International과 Teal Group 등 2개 전문기관이 추정한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은 부품과 엔진, 정비를 포함하여 2013년 기준 4,503억~5,488억 달러로 추정(군수와 민수 종합)
- 이는 2010년 한국항공우주협회가 매년 4%의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한 2013년 4,500억 달러 시장규모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예상보다 전 세계 항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UNCTAD 통계에 의하면 항공기 및 부품의 교역시장은 2013년 2,085억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9.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 증가, 저가항공의 등장 등으로 항공운송 산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항공기 산업은 민수 위주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 전 세계 항공기 및 부품시장에서 민수의 비중은 약 73~84%로 군수 비중을 압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수 위주의 산업 성장이 예상됨
- Airbus사는 2012년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민간항공여객수요가 연평균 4.7%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항공기산업은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 전망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항공기 및 부품시장의 규모를 6조,6665억 달러로 전망함¹²⁾

12) 장태진(2014), “세계 항공산업 현황과 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2권 1호

나. 국내 산업

□ 한국 항공산업은 기반이 약한 수준이지만 빠르게 성장 중에 있음

- 세계 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0.6%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세계 주요국가의 항공우주산업 매출액(2011년) >

순위	국가	매출액(억불) <비중(%)>	고용 (천명)	주력분야
1	미국	1,874 <43.7>	625	완제기, 엔진
2	프랑스	502.88 <11.7>	162	완제기, 엔진
3	영국	373.8 <8.7>	101	엔진, 부품
4	독일	357.83 <8.3>	97	부품, 헬기
5	캐나다	226.47 <5.3>	87	중형기
6	중국	177 <4.1>	501	군용기
7	러시아	176.68 <4.1>	407	군용기
8	일본	175.83 <4.1>	32	부품
9	이탈리아	133.34 <3.1>	35	군용기, 헬기
10	스페인	92.52 <2.2>	33	중형기, 부품
11	브라질	58.03 <1.4>	17	중형기
12	스웨덴	36.20 <0.8>	13	군용기
13	이스라엘	34.40 <0.8>	16	무인기
14	스위스	28.84 <0.7>	9	소형기
15	한국	26.97 <0.6>	10	군용기, 부품
16	싱가포르	15.27 <0.4>	8	MRO

자료: 변완일(2014),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2권 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의 항공산업은 일부 군용기와 부품 수출에 한정되어 있으나 관련 수출액은 2014년 기준 20.3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을 15.8%의 매우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의 항공 수출(2012년 기준)에 있어서 완제기의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기체 부품이나 엔진부품 등에 제한되어 있으나, 완제기 개발 노력으로 향후 완제기 시장의 진입 가능성이 있음

다. 성장 가능성

□ 한국 항공기산업은 고유기종 생산이 가능한 단계로, 추가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이어진다면 시장영역 확대가 가능함

- 현재 한국 항공기 제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중형항공기의 독자개발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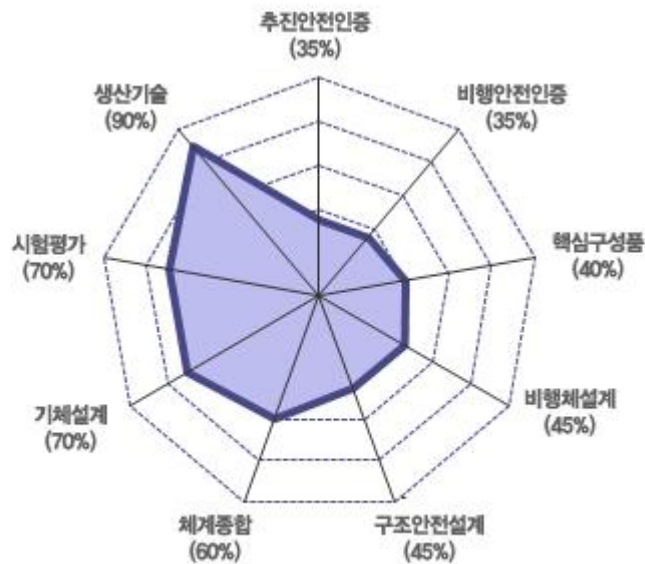
< 국가별 기술 발전 단계 >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현재 한국과 유사한 기술 수준으로 평가되는 브라질의 경우 중형 항공기사업에 주력한 결과 한국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한국 항공기 제조업의 방향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F-5와 KF-16 등 군용기의 조립 및 면허생산과 T-50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해 항공기 개발 능력을 축적해가고 있어 중형 항공기 시장에서 향후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아직까지 한국 항공기산업은 안전기술, 비행체 설계, 핵심 구성품 등에서 기술력 부족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

< 한국 항공기산업 기술력 수준 >



주: 선진국 대비

자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특히 정부는 항공산업을 향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있어 향후 수출확대가 기대됨

- 정부는 2014년 4월 “항공산업 수출산업화 촉진 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2020년의 수출액을 200억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우선 KAI, 대한항공, 삼성테크윈으로 대표되는 국내 항공부품업체가 보잉과 에어버스 등의 RSP(risk sharing partner)로 참여하면서 향후 수년간 1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
- 군용기 생산과 개발을 통하여 얻은 노하우와 한국형 헬기사업을 통하여 역량으로 향후 독자적인 중형항공기 사업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음
-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향후 한국 항공기 및 부품산업의 역량은 한층 진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액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가공식품산업

가. 세계 시장

□ 가공식품 시장은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Datamonitor에 의하면 2013년 전 세계 가공식품시장(음료 포함) 규모는 4조 2,590억 달러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9~2013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3.13%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음료를 제외한 가공식품 시장이 2013년 2조3,840억달러로 2009년 이후 3.34%의 성장률을 보였고 같은 해 음료시장은 1조 8,750억 달러로 연평균 2.87%의 성장률을 나타냄
- UNCTAD의 데이터 검토결과 가공식품 중 여러 품목이 세계 교역 시장 성장률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UNCTAD) : 육가공제품 9.4%(교역액¹³⁾ 210억달러), 초콜릿 제품 9.2%(255억달러), 수산가공품 8.9%(253억달러) 외

□ 최근 세계 가공식품 시장의 특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주요국의 가공식품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순위	국 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세계 시장점유율	'09-'13 평균성장률
1	미국	426	439	449	458	468	19.63	2.34
2	중국	292	312	333	354	376	15.77	6.34
3	일본	175	178	180	181	183	7.67	1.12
4	독일	130	132	135	137	139	5.81	1.60
5	브라질	107	112	118	122	127	5.33	4.29
6	프랑스	92	93	95	97	97	4.09	1.53
7	영국	81	83	86	88	91	3.81	2.84
8	러시아	69	73	76	80	84	3.51	4.68
9	이탈리아	77	78	80	82	84	3.50	2.1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 분석 보고서”

13) UNCTAD 자료 2013년 기준

- 전 세계 가공식품 시장의 비중에 있어서 유럽은 2009년 35.0%에서 2013년 33.7%로 비중이 낮아졌고 동 기간 미주는 32.6%에서 32.3%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9년 30.4%에서 2013년 31.8%로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음
- 실제로 2009~2013년간의 주요국 가공식품(음료 제외) 시장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6.34%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음
-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중국 시장의 급성장은 한국 식품 산업의 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가공식품시장은 향후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 전망

- Datamonitor에 의하면 향후 3년간 연평균 4%의 성장률로 2017년에는 6조 2627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전망¹⁴⁾
- 한국 식품산업의 주요 타겟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5.4%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과거 가장 큰 지역 시장이었던 유럽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2% 성장에 그쳤고 향후 3년간 연평균 2.4% 성장을 보일 전망

나. 국내 산업

□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아직까지 세계 시장점유율이 낮아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수출 실적은 농산가공품의 수출액이 2014년 기준 10.6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1%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기호식품도 38.4억달러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나타냄
- 한국의 매출순위 15대 식품기업의 2013년도 총 매출은 18조 8,391 억원이었으며 이중 수출에 의한 매출은 총 6,69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6%에 불과함
- 식품기업의 특성상 현지 제조품 판매로 수출 이외에 해외판매 매출분이 따로 존재하나 이를 고려하여도 가공식품산업은 지금까지 내수산업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비중은 작음

14) 본 절의 현황과 전망치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3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에서 인용한 datamonitor의 전망을 인용함

- 일부 기업은 수십 년 전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수출을 본격적인 성장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 수년전임

다. 성장 가능성

□ 가공식품의 수출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우선 한국 기업들의 주요 타겟시장이며 인구가 밀집된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를 중심으로 향후 수출을 확대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정부는 현재 중국과 아시아를 겨냥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익산시에 조성중이며 수출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식품시장은 그 나라의 문화와도 결부되어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한데 중국과 아시아 지역은 한류의 영향으로 이러한 장벽을 많이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충분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직 살균 등 핵심기술에서 선진국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발효기술 등 일부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핵심기술에 있어서도 집중투자를 통한 기술추격이 가능할 전망
- 향후 가공식품 시장의 유통망 획득 등 과제가 남아 있으나 강력한 마케팅 정책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가공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함

- 시장의 규모가 크고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나 오랜 노하우와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력은 추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술력은 결정적 품질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각 국가별 지역별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의 기호가 모두 다르며 소비자들의 습관이나 문화까지 산업 외적인 복잡한 변수 존재
- 제품의 품질 뿐 아니라 유통구조가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함
- 일단 시장에서 위치를 확보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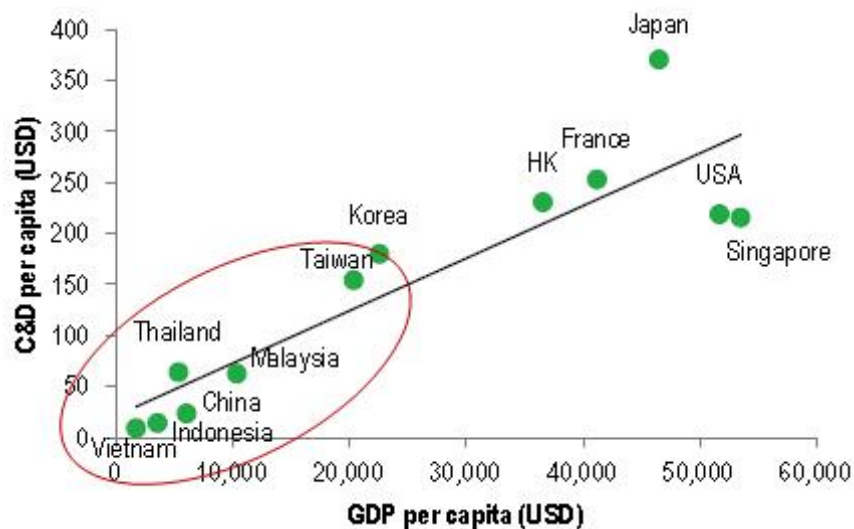
4. 화장품산업

가. 세계 시장

□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4,320억 달러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인당 소비금액 증가, 남성·청소년·노령인구의 소비층 확산에 따라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사치재에서 필수재로 변화
- 지역별 시장 비중은 유럽이 37.6%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31.1%, 미주 28.7%, 아프리카 및 중동 2.6% 순
 - 우리기업의 주력시장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7%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인당 화장품 지출액 및 GDP >



자료: Euromonitor

나. 국내 산업

□ 2014년 국내 화장품산업 총생산은 9.0조원으로 전년대비 12.5% 성장

- 화장품산업의 성장률은 국내 GDP 성장률(3.7%)의 3.2배, 제조업 GDP 성장률(4.5%)의 2.6배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
 - 경기침체로 소비재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생산 증가, 중국 등 해외수출 증가로 고성장을 실현

□ 2014년 화장품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전년대비 40.3% 성장하였으며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가 수출을 견인

- 수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4%에 달함

<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출금액	597	805	1,067	1,283	1,800
증가율		34.8%	32.6%	20.3%	40.3%

- 중화권 수출 비중(60.7%)이 높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증가율도 연평균 20% 이상을 실현
 - 중화권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29.6%, 홍콩 25.1%, 대만 5.9%
 - 지난 7년간 동남아 주요국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60.4%, 태국 52.6%, 베트남 27.7%, 말레이시아 27.2% 순
- 화장품 산업은 화학기술 토대 확립(1990년대), 한류 확산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2000~2008)를 거쳐 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
 - 1990년대에는 화학기술 개발, 원료 원천기술 개발이 본격화됨
 - 2000년대 후반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도화 기술개발과 고가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브랜드, 기술력, 품질경쟁력을 확보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순위에서 각각 17위, 26위, 56위를 차지

- 원천기술,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한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한류 및 제품경쟁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기업	국가	매출액	증가율	순위변동
1	로레알	프랑스	30,520	2.3	
2	유니레버	영국	21,330	-0.3	
3	P&G	미국	20,500	-1.0	
4	에스티로더	미국	10,390	4.1	
5	시세이도	일본	7,700	13.6	
6	에이본	미국	7,100	-7.1	
7	바이어스도르프(니베아)	독일	6,440	1.3	▲1
8	존슨앤존슨	미국	6,000	2.2	▲1
9	샤넬	프랑스	5,840	6.0	
10	Kao	일본	5,820	6.0	▼3
11	LVMH	프랑스	4,940	2.9	
17	아모레퍼시픽	한국	3,320	15.1	▲1
26	LG생활건강	한국	1,760	14.7	▲1
56	에이블씨앤씨	한국	398	-2.2	

주: 2013년 실적 기준

자료: Women's Wear Daily

다. 성장 가능성

□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70년의 업력을 보유하여 글로벌 기업과 업력 격차가 크지 않음

-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LG생활건강은 1947년에 설립되어 약 70년의 업력을 보유
- 세계 최대 업체인 로레알(106년)을 제외한 경쟁 기업(에스티로더 70년)들과 업력은 대등한 수준

□ 한류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개별 제품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음

- 브랜드 가치기준 세계 50대 화장품 브랜드에 설화수(42위)와 헤라(49위)가 포함됨

< 세계 50대 화장품 브랜드의 가치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기업	국가	브랜드 가치	전년대비 증감율	순위변동
1	로레알 파리	프랑스	11,218	15	
2	질레트	미국	8,988	7	신규진입
3	도브	영국	5,821	-1	▲2
4	팬틴	미국	5,364	-13	▼1
5	니베아	독일	5,322	-12	▼1
6	샤넬	프랑스	4,921	9	▲7
7	에스티로더	미국	4,792	4	
8	가르니에	프랑스	4,630	-4	▼2
9	올레이	미국	3,986	-2	
10	랑콤	프랑스	3,984	-3	▼2
42	설화수	한국	807	84	▲2
49	헤라	한국	602		신규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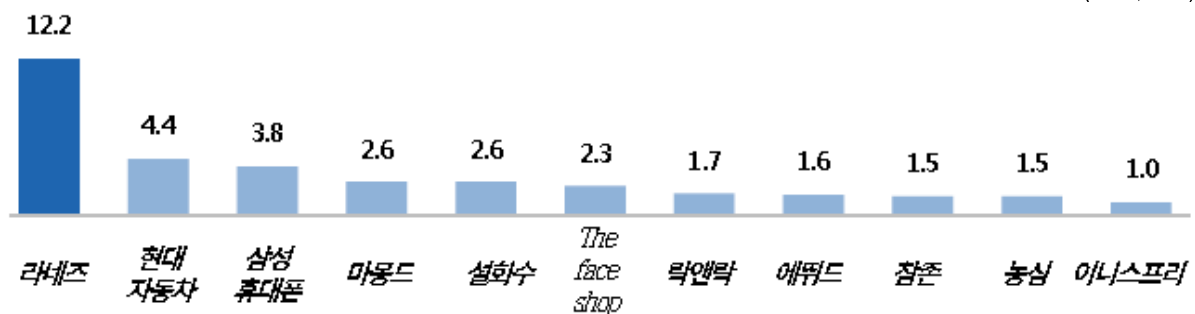
자료: Brand Finance(2015)

- 중국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성공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음

- 중국인들의 한국 제품 인지도 조사결과¹⁵⁾ 상위 11개 브랜드 중 7개가 화장품 브랜드
- 브랜드별 인지도는 라네즈가 12.2%로 가장 높았으며 마몽드와 설화수 각 2.6%, 더페이스샵 2.3%, 에뛰드 1.6%, 참존 1.5%, 이니스프리 1.0% 순

< 한국 제품 인지도 >

(단위: %)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15)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 주요도시 소비자 2,19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역량을 보유

- 2006년 한스킨이 출시한 BB(Blemish Balm)¹⁶⁾ 크림이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자 디올 등 주요 기업들이 BB크림을 출시
- 2011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출시한 쿠션 파운데이션은 랑콤이 2014년 유사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디올은 관련 기술 제휴를 요청

□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세계 100대기업 10개를 육성할 할 계획¹⁷⁾

- 내수중심(80%)의 산업구조를 수출주도형으로 변화시켜 2020년까지 수출액 60억 달러를 달성
 - 수출시장도 동남아 중심에서 미국, EU, 중동 등 신시장으로 확대
- 국내 기술수준을 2014년 선진국 대비 80%에서 2018년까지 90%로 격상하고 글로벌 Top 브랜드 제품 개발을 지원
 - 우리나라의 강점인 한방·발효화장품과 고기능성 원천소재 발굴에 정부 R&D를 중점 투자

□ 한류로 인한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 오랜 업력, 브랜드 파워, 제품 개발역량을 통해 높은 수출 성장세가 기대됨

- 국내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구매로 이어지고, 제품력은 재구매 및 높은 충성도로 이어지는 특성을 보유
- 향후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타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16)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톤을 정리해주며 자외선을 차단시킴

17) 화장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3.9), 화장품 수출 '명품 브랜드' 창출을 위한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강화전략 (2013.9)

5. 이차전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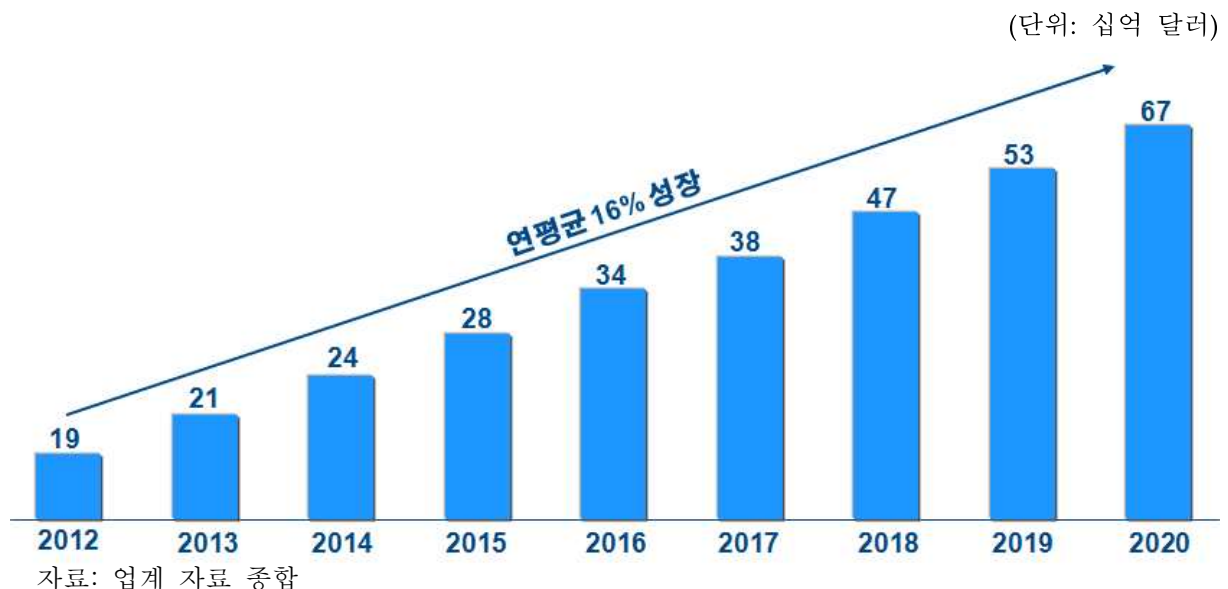
가. 세계 시장

- 2014년 기준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231억 달러이며, 2015년 전년대비 19% 증가한 275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기준 핸드폰 및 노트북용 소형 IT기기용 리튬 이차전지가 147억 달러로 전체 수요의 64%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이후 소형 IT용 이차전지 시장은 성숙단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비중도 2015년 56%, 2020년 29%로 급감할 전망
-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23조원 규모의 리튬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2020년 64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수요 증가의 가장 큰 동인은 중대형 이차전지의 수요 증가 때문임
 - 전기차 한 대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용량과 가격은 노트북 1,000배, 핸드폰에 5,000배에 이르러 중대형 시장 성장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임
 -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가격은 일반적으로 24kWh를 기준으로 약 15,000~20,000달러
-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의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2014년 57억 달러, 2020년 158억 달러로 연평균 17%씩 성장할 전망
 - 전기 자동차는 보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 등이 해결되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 중
 - 전기차 수요 증가와 함께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리튬 이차전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2013년 14억 달러에서 2015년 53억 달러, 2020년 297억 달러로 연평균 65%씩 급성장할 전망

- 전기차용 리튬 이차전지 수요보다 에너지저장용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저장용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안정화, UPS¹⁸⁾시장으로 구분
 -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문 시장은 2013년 0.3조원, 2015년 1.6조원 2020년 10.1조원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
 -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에너지저장 부문은 2013년 0.4조원, 2015년 2.0조원 2020년 10.2조원으로 신재생 부문과 유사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가정 및 산업용 UPS 시장은 2013년 0.7조원에서 2020년 9.4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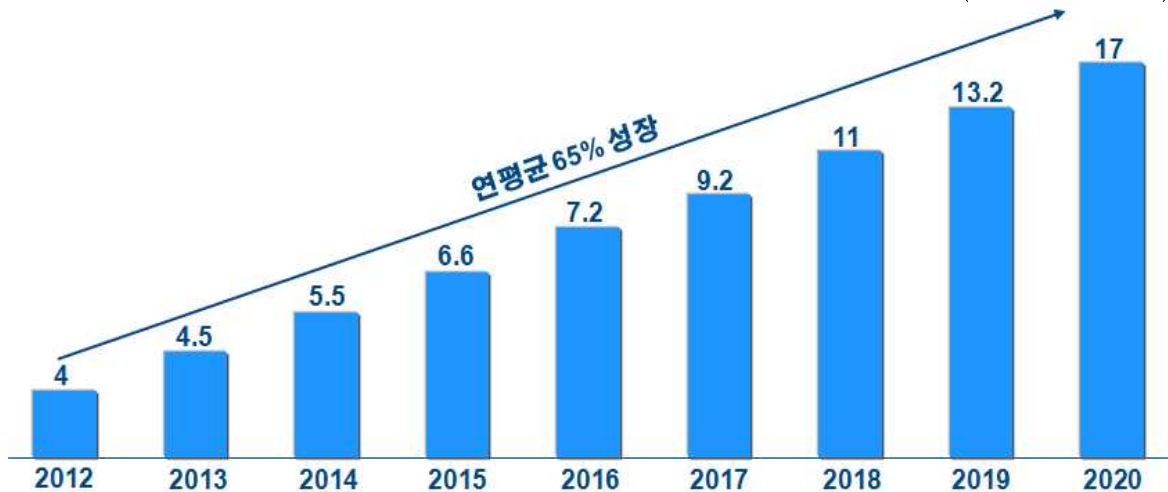
< 세계 리튬이차전지 현황 및 전망 >



18) ups(uninterruptible power system) : 정전이 되었을 때 전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

< 세계 전기차용(ESS : Energy Storage System) 리튬이차전지 현황 및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시장 확대에 관련 소재시장 규모도 2020년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

- 리튬 이차전지 소재 시장은 2013년 85억 달러에서 2015년 102억 달러 2020년 251억 달러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세계 에너지저장용(ESS : Energy Storage System) 리튬이차전지 현황 및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HS

- 소재시장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양극재 시장규모는 2014년 3.1조에서 2020년 9조원으로 세배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분리막 시장은 2014년 1.2조에서 2020년 3.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극재 시장은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3.3조원으로 증가

□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 주도권을 놓고 한·중·일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일본은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풍부한 리튬 및 흑연 자원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2014년 출하량 기준 핸드폰, 노트북 등 소형 IT 기기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SDI가 20.5%이며, 그 뒤를 LG화학이 16%를 차지
-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은 2015년 삼성SDI와 LG화학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49.5%로 일본(48.9%)를 추월할 전망
 - LG화학은 아우디를 새 고객사로 추가하면서 기존 GM,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현대·기아차, 포드 등을 포함해 세계 10대 완성차 그룹 중 6곳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삼성SDI도 BMW, 폴크스바겐 등 완성차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
-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의 무서운 추격이 시작됨
 -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기준으로 이미 35%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비슷한 수준
 - 중국 업체들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갖기 시작했는데 ATL등의 업체들은 애플의 소형제품에도 채용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 일본 업체는 완제품 경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력으로 소재분야에서 여전히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
 - 원자재 및 소재 분야의 독점적인 위치를 구축한 일본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기술 독립이 시급
 - 국내 업체들도 소재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 업체와 격차가 있는 상황

< 소형 IT용 리튬이차전지 시장 점유율 현황 >

		2013년		2014년	
순위	기업	출하량 (백만 Cell)	시장점유율 (%)	출하량 (백만 Cell)	시장점유율 (%)
1	삼성SDI	1096	21.7	1,139	20.5
2	LG화학	718	14.2	884	15.9
3	파나소닉	604	12	793	14.3
4	소니	387	7.7	417	7.5
5	ATL	280	5.5	334	6.0
6	Lishen	275	5.5	304	5.5
7	BYD	251	5.0	169	3.0
8	Coslight	170	3.4	154	2.8
9	Maxell	134	2.7	108	1.9
10	BAK	99	2.0	98	1.8
	소계	4,015	79.4	4,399	79.1
	그 외 중국기업들	1,038	20.6	1,162	20.9
	Total	5,054	100	5,561	100

자료 : SNE

나. 국내 산업

□ 2014년 기준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25.5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5.6억 달러로 약 2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

- 리튬이차전지 주요 수출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40%가 넘는 13억 달러로 최대
- 최대 수입국가는 중국으로 3.4억 달러를 수입하여, 국내 리튬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가장 활발한 상황

<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액	1,164	1,623	1,727	2,105	2,328	2,511	2,570	2,550
수입액	398	521	551	547	542	530	580	560
무역 수지	766	1,102	1,176	1,158	1,786	1,981	1,990	1,9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대상국	수출액	
	2012	2013
중국	1,583	1,334
홍콩	214	272
미국	258	263
베트남	171	183
독일	51	1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3년 기준 삼성SDI가 시장점유율 20.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LG화학이 15.9%로 2위를 기록 중

-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글로벌 Top 10 업체 중에서 미국의 Maxwell을 제외한 9개 업체가 한국, 일본, 중국 기업
-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1991년 소니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20년 이상 일본 업체들의 독주가 이어졌던 상황
- 그러나 2000년 중반 이후 한국 업체들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엔고/원저 상황 속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고객이자 계열사인 삼성

전자, LG전자의 성장 등을 통해 일본 업체들을 넘어서기 시작

- 2014년 기준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36.4%로 세계 1위이며, 업체별로는 삼성SDI, LG화학이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다. 성장 가능성

□ 우리나라 리튬이차전지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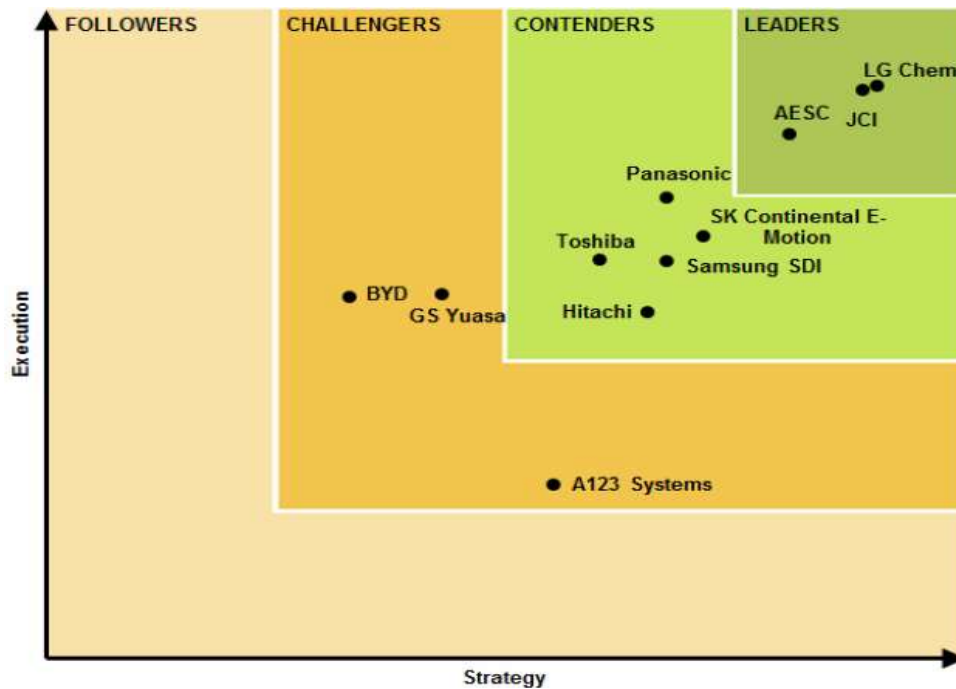
- 2014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및 에너지분야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도 한국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LG화학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삼성SDI 최상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LG화학은 GM, 포드, 현대기아차, 르노 등을 포함한 10여개 회사와 전기차용 중대형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삼성SDI는 BMW, 폭스바겐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시장을 주도
-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음

< 에너지저장용 리튬이차전지 기업들 경쟁력 현황 >



자료 : Navigant

<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 기업들 경쟁력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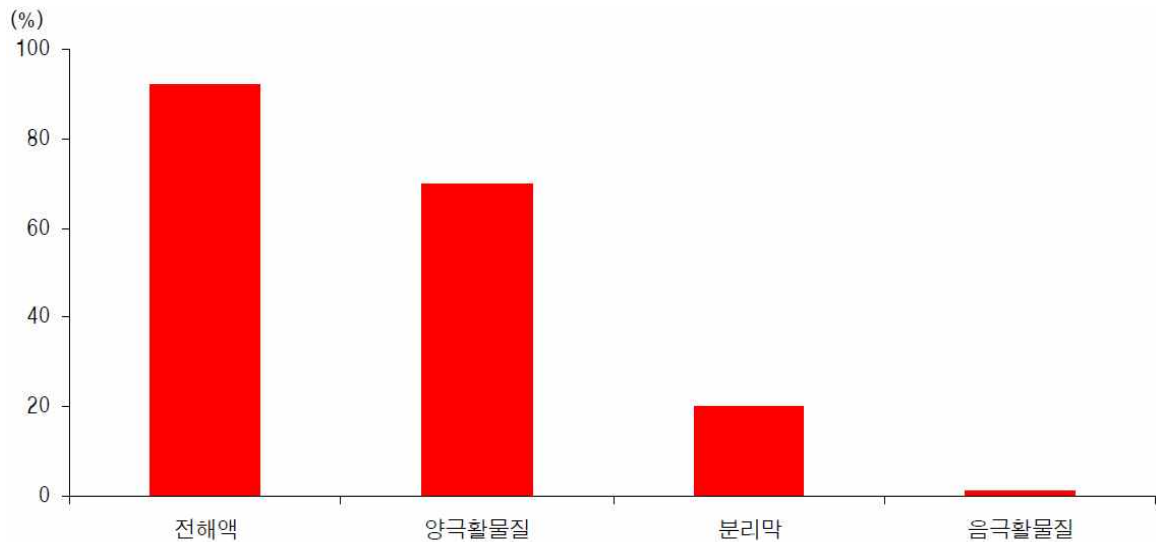


자료 : Navigant

□ LG화학, 삼성SDI 등 완성 전지기업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리튬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의 경쟁력은 일본대비 미흡한 상황

- 국내 전지 제조기술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재 및 핵심기술은 선진국 대비 30~40% 수준
 - 전해액과 양극재를 제외하고는 소재의 국산화율은 약 2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소재 분야의 국산화가 필요
- 국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소재 국산화에 나서고 있어, 근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전망
 - 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빠른 시간내에 일본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리튬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빠르게 성장할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에너지 분야 융합기술의 핵심이며,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차세대 유망수출산업으로 기대가 큰 산업
- 리튬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 분야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은 전력산업의 차세대 기술인 스마트그리드의 핵심기술
 - 또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전기차의 핵심부품은 전기저장 장치인 배터리이며, 리튬이차전지가 기술 표준으로 자리매김
 - 미래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점인 리튬이차전지는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을 수 있으나, 핵심부품으로써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전망
 -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주요 소재·부품분야 국산화율은 약 25%에 불과하나, 소재·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할 경우 세계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더 공고해 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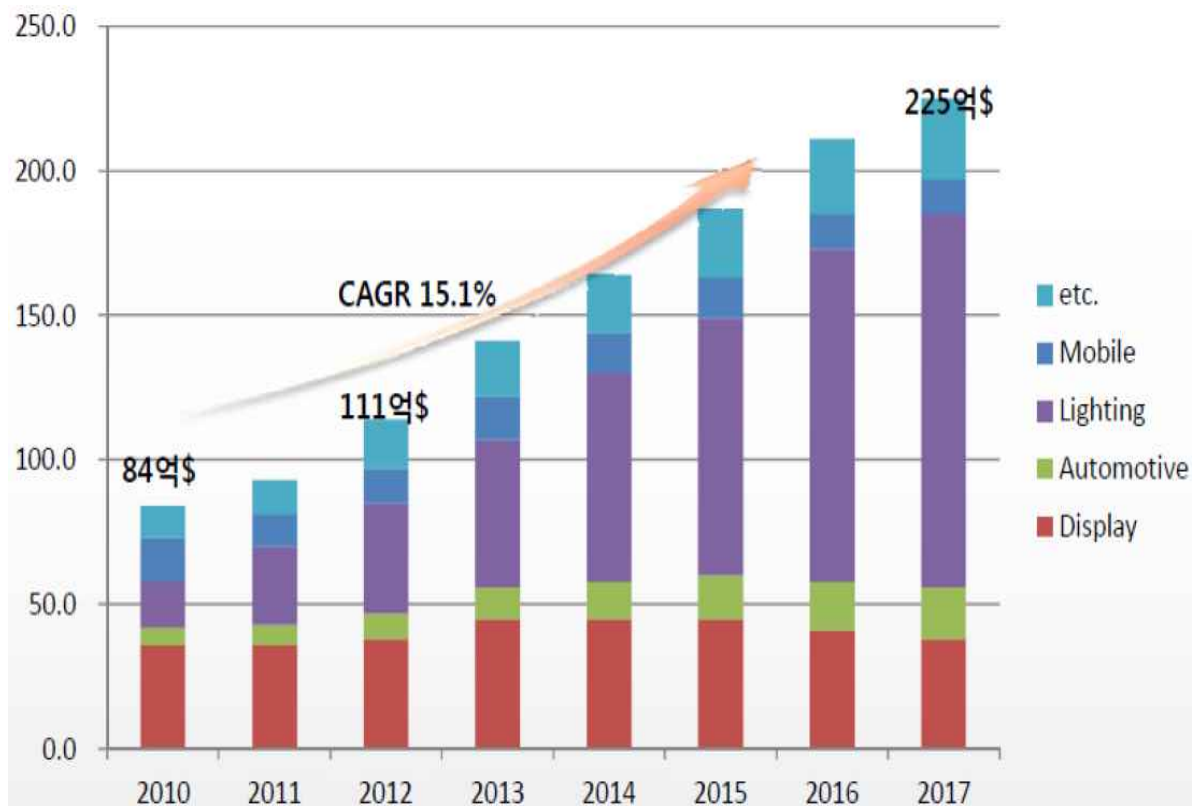
6. LED산업

가. 세계 시장

- LED는 장수명, 저전력, 환경친화적 장점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세계 LED 시장규모는 165억 달러
- 2000년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LED시장은 2011년 111억 달러, 2017년 225억 달러로 연평균 15% 이상씩 고성장할 전망
- LED 산업의 성장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00년 대 초반 휴대폰에 사용되면서 첫 보급이 이루어 졌으며, LCD TV backlight unit으로 LED가 사용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
- 현재는 성장을 이끌었던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용 BLU 시장은 성숙 및 정체기에 진입하고, 조명용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세계 LED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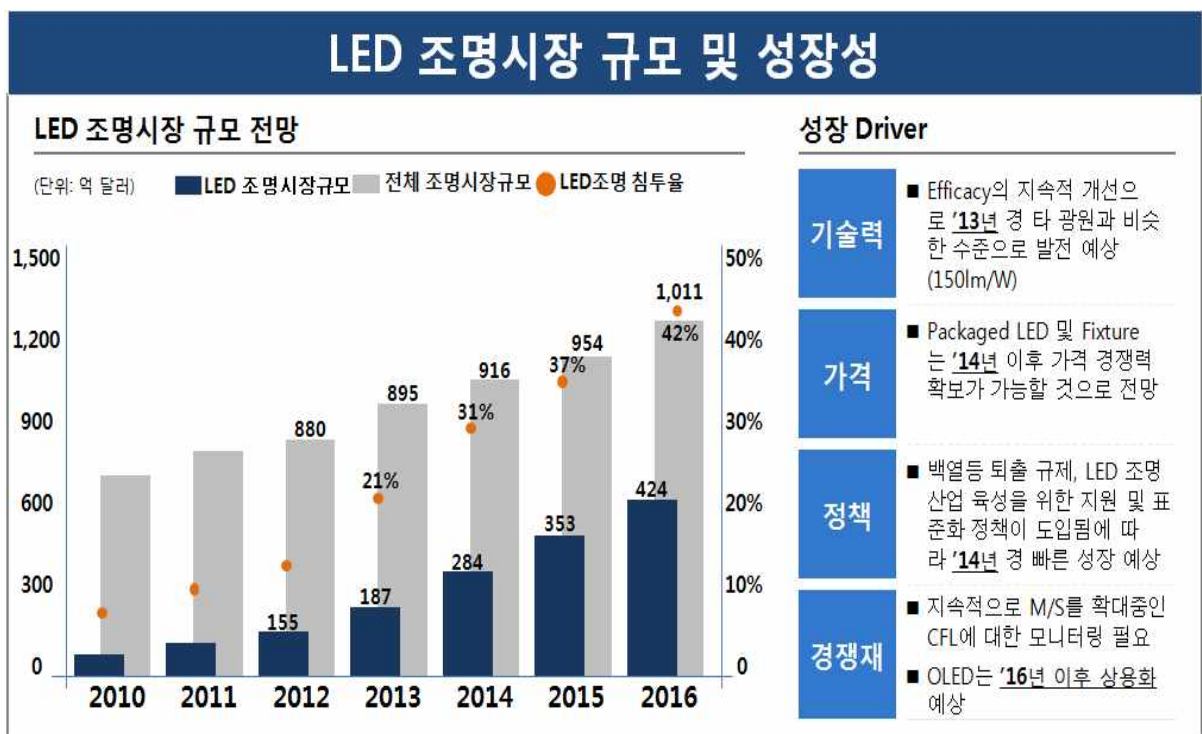


자료: SNE

□ LED산업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명시장에서 차세대 조명기술로 LED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

- LED 기술이 조명시장에서 차세대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배경은 2012년 9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백열등 사용 규제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의 향상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가격 감소 등으로 상품성 강화 때문임
- 2014년 기준 세계 조명시장 규모는 916억 달러이며, 2016년 1,01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2014년 세계 조명시장에서 LED 비중은 31%이며, 2016년 42%까지 확대되어 세계 LED 조명시장은 424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향후 LED산업은 조명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세계 LED 조명시장 현황 및 전망 >



□ 높은 에너지 효율 및 환경친화성으로 기후변화시대에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2013년 기준 10대 LED 기업 순위를 보면 한국3개 미국 2개, 일본 2개, 독일 1개, 중국 1개, 대만 1개로 구성
-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독일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구도가 바뀌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이 LED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가격전쟁이 시작됨
 - 특히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조명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조명가격이 1/2이상 하락함

< 2013년 기준 세계 LED 기업 순위 >

순위	업체명	국적
1	닛치아	일본
2	오스람 옵토	독일
3	삼성전자	한국
4	서울반도체	한국
5	필립스 루미레즈	미국
6	크리	미국
7	LG이노텍	한국
8	에버라이트	대만
9	토요타고세	일본
10	엠엘에스	중국

자료: IHS

□ M&A, 상호 특허 공유 및 수직계열화를 통해 주요 LED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북미, 유럽, 일본 선진기업들은 웨이퍼부터, 칩 패키지까지 LED 생산 전반을 커버
 - 특히 기술력을 기반으로 MOCVD 등 생산장비 분야는 독점하고 있는 상황
- 기술경쟁력 확대를 위해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 패키지 부분 1위 업체인 니치아는 오스람, 필립스등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여 높은 기술장벽 형성
-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등 일부 국내기업들은 자체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업체와 크로스라이선스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대응력이 취약
- 또한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도기업들은 전 밸류체인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완성

< LED 주요 기업 및 수직계열화 현황 >

	웨이퍼		에피	칩	패키지
	Ingot	Sawing			
대 만	AMC, Sino-American Sil.	Teraxtal Crystal wise	Epistar, Epitek, Forepi, Tekor, Anima, Optical AET	Opto Tek, Tyn	
일본	Kyocera		Nichia, Rohm, Toyota Gosei		
한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알진디스플레이 크리스탈온	LG 이노텍, 삼성LED 서울옵토디바이스 서울반도체		
북미/유럽	Rudicon, Honeywell Mono Crystal		Osram, Lumileds Cree, AXT, Gelcore, Uniroyal Avago		

모회사	에피.칩	패키지	컨트롤	조명기구
Osram	Osram Opto Semiconductor	Osram Opto Semiconductor	Osram LED System	2400sram Sylvania
GE	Nichia (전략적 제휴)	Nichia (전략적 제휴)	GE Lumination	GE Lumination GE Lighting
Philips	Lumileds, ILighting, Future Lighting Solution	Lumileds, ILighting, Philips S.S.I.	Genlyte	Color Kinetics, Philips Lighting
Cree	Cree	Cotco	LLF	L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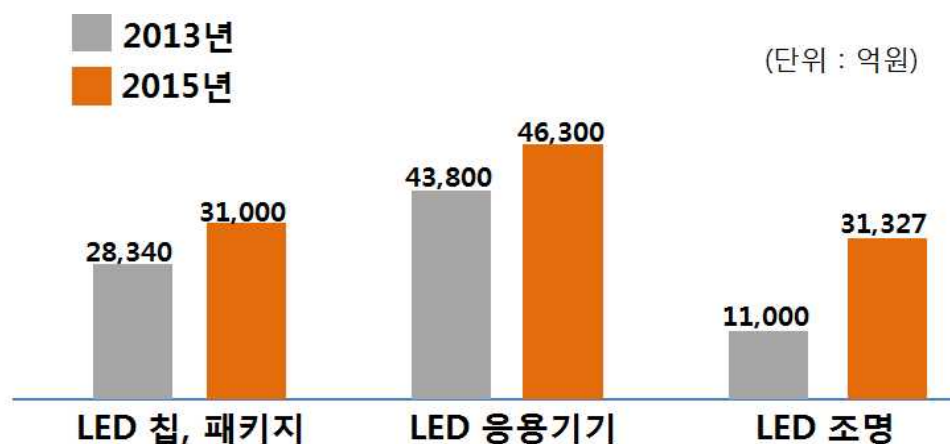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나. 국내 산업

- 2013년 국내 LED 시장 규모는 8.3조원으로 추정되며, 2015년 10.8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

- LED 칩 및 패키지 시장규모는 2013년 2.8조원이며, 2015년 3.1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LED 응용기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3년 4.3조원 규모이며, 2015년 4.6조원까지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LED 조명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15년 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

< 국내 LED산업 매출 동향 >



자료 : 한국광기술원

□ 2014년 우리나라 LED 수출액은 51억 달러

- 2009년 23억 달러였던 LED 수출액이 2010년 51억 달러로 급증
 - 이는 LED가 핸드폰에 이어 TV 등 다양한 응용분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원년
- 2010년 이후 수출액은 50억 달러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LED가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본격화되었기 때문
 - 주요 LED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에 따라 LED 생산단가가 큰 폭으로 낮아져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정체인 상황
- 2015년 이후 조명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수출액도 큰 폭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LED 수입액은 47억 달러로 4,000만 달러의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LED 칩 수입액이 국내 수요 및 수출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 LED산업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년도	수출액	수입액
2007	17	29
2008	19	37
2009	23	35
2010	51	47
2011	53	47
2012	54	48
2013	56	50
2014	51	4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양산형 모델에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력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원천기술 측면에서는 선진 기술대비 열세인 상황

- 국내업체는 진입장벽이 낮은 패키지 및 모듈공정에 집중
 - 에피 및 칩 생산업체는 삼성LED, LG이노텍, 에피밸리등 13개에 불과하며, 모듈, 기구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영세
- LED 부품·소재와 장비업체는 시장진입단계로 선발업체와의 기술수준이 40~60%으로 격차가 큰 상황
- 글로벌 기업대비 브랜드 경쟁력 및 시장 노하우가 부족하며,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

- Big3 업체(오스람, 필립스, GE)가 세계조명 시장 50%이상, 국내시장도 60% 이상 장악
- 잉곳, 웨이퍼, 칩 및 패키지 분야의 경우 선진국 기술대비 80% 이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

< 국내 LED산업 기술 수준 >

구분	소자				조명 · 응용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모바일 LCD BLU	일반 조명	차량 조명	의료 바이오
	잉곳 · 기판	칩 · 패키징	MO CVD	패키징				
기술 경쟁력	90%	80%	40- 60%	70- 80%	100%	80 - 90 %	60%	-
가격 경쟁력	100%	90%	-	100%	100%	60 %	30%	-

자료 : 산업부

다. 성장 가능성

- 반도체 기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LED 생산역량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등 LED 주요 응용분야에 산업적 강점을 가지고 있어 LED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
- 대외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산업과 LED산업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융합을 위한 IT/BT/NT/GT 및 전통산업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LED 조명을 중심으로 연 1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로 에너지효율 기술로서 LED 기술은 향후 더욱더 커질 전망
- 유관산업에 경쟁력, 세계 LED시장 성장 등 기회요인이 많은 상황이나, 소재/부품 등 원천 핵심 기술의 취약성, 후발주자인 중국과 경쟁영역이 겹치는 문제점 등은 국내 LED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7.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산업

가. 세계 시장

□ 송배전기기시장은 2012년 1,191.6억 달러에서 2015년 1,344.8억 달러, 2022년 1,793.7억 달러로 연평균 4.2% 성장

- 선진국의 노후화된 설비 교체수요, 개도국의 발전소 건설 증가, 스마트그리드의 확대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스마트그리드는 전기공급구조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생산 및 소비를 최적화시키는 차세대전력망
- 시장규모가 큰 품목은 변압기, 전선 및 케이블, 개폐장치 등
 - 변압기 시장은 2012년 332.9억 달러에서 2022년 478.6억 달러로 연평균 3.7% 성장
 - 전선 및 케이블 시장은 2012년 295.9억 달러에서 2022년 432.6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
 - 개폐장치 시장은 2012년 256.2억 달러에서 2022년 364.9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

< 세계 송배전 기기시장 >

(단위 : 백만달러)

품목별	2012	2015	2022	연평균성장률
변압기	33,285	37,115	47,856	3.7%
전선 및 케이블	29,587	33,158	43,257	3.9%
개폐장치	25,617	28,485	36,491	3.6%
애자 ¹⁾ 및 금구류	19,078	21,414	28,036	3.9%
제어 및 계측	7,265	9,383	17,045	8.9%
FACTS ²⁾ 설비	3,501	3,977	5,358	4.4%
변환장치	823	950	1,327	4.9%
합계	119,155	134,482	179,370	4.2%

주: 1) 절연체

2)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유연송전시스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송전 제어 기술을 통해 전력 수송과 계통 안정성을 향상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ABB, 지멘스, 슈나이더,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들이 M&A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

- 전선시장은 상위 10개 기업이 세계 시장의 약 30%를 점유
 - 유럽, 미국, 일본, 한국기업이 상위권에 위치하며 상위 10개 기업이 초고압전선 제조기술을 보유

나. 국내 산업

□ 2014년 송배전기기 수출액은 38.6억 달러, 수입액은 14.3억 달러로 24.4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

- 송배전기기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8.3%의 고성장을 실현

< 송배전 기기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11년	‘12년	‘13년	‘14년
수출액	3,045	3,564	3,463	3,865
증가율		17.0%	-3.6%	12.5%
수입액	1,404	1,377	1,555	1,428
무역수지	1,641	2,187	1,908	2,437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품목별로는 배전 및 제어기기(26.9%), 전선(26.0%), 변압기(23.7%)의 비중이 높음

<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11년	‘12년	‘13년	‘14년
배전 및 제어기	604	881	1,010	1,038
전선	694	751	652	1,004
변압기	1,136	1,228	994	915
차단기	366	423	500	646
개폐보호접속장치	245	281	283	262
합계	3,045	3,564	3,463	3,865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현대중공업, 효성, LS전선, 일진전기 등이 동 사업을 영위

- 변압기 등 전력기기 시장에는 현대중공업, 효성, 일진전기 등 약 200여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
 - 변압기는 현대중공업과 효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약 10%
- 전선시장은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이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사업에 참여(100~200여개)
- 국내 송배전망 구축이 일단락 된 2000년 이후 해외진출 확대되었으며 주요 기업의 수출비중은 40~50%

다. 성장 가능성

□ 송배전기기의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은 80~90% 수준이며 향후 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그리드의 기술수준이 높음

- 전선, 변압기, 차단기의 제작 기술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 소재기술은 수입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이 다소 낮은 편

< 주요 제품의 기술경쟁력 >

	비교대상국	기술경쟁력			
		설계	소재	가공	제작
전선	이태리, 일본	90	75	95	95
변압기	미국	83	77	83	91
차단기	미국	80	80	80	90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스마트그리드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90.3%, 기술격차는 1.9년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¹⁹⁾

□ 차세대 송전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²⁰⁾)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높은 수출성장이 기대됨

19)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 2015. 5

20) High Voltage Direct Current

- 초고압직류송전은 전력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며 교류 송전대비 건설비가 낮아 성장성이 높음
 - 시장규모는 2012년 4조원에서 2020년 77조원으로 19배 성장할 전망
- ABB, 지멘스, Alstom이 과점체제를 형성(시장점유율 95%)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기술확보 노력으로 국산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LS산전은 2013년 한국전력과 Alstom이 HVDC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KAPES의 기술이전 및 제작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까지 HVDC 기술을 확보할 계획
 - 효성은 2015년에 HVDC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

□ 기술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내구성, 안정성을 확보

- 제품은 선도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가격은 약 10~25% 낮아 품질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
 - 변압기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가격은 약 25% 낮음
- 국내외 사업 경험을 통해 내구성 및 안정성에 대한 track record를 확보

□ 국내 EPC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동 중심에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동반 진출 기회 증가

- 발전플랜트 성장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송배전기기는 물류 부담 등으로 인해 제조기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속성을 보유

IV. 시사점 및 결론

- 세계 수출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9조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 5,700억 달러의 약 33배 수준에 달함
 -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2010년 15.3조 달러로 급감했던 세계 수출시장이 2011년 18조 달러를 회복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약 19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수출시장은 여전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우리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출전략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치산업, 즉 조선, 철강, 중화학, 기계장치 등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
 - 주력 수출품목이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 끼어 "넛 크래커" 상황에서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력에 쫓기고 일본의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역넛 크래커" 상황에 처할 위기에 빠져 있음
 - 품목 다양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등 현재 13개 품목에 편중된 수출전략 수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
- 기존 13대 주력수출품목 외에 신규 7대 유망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의 품목을 2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출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과의 정면승부보다 중국과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대외여건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안정적인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출 포트폴리오 확대전략 필요
 -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등 산업고도화 전략이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하나 핵심기술 확보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해 단시간에 격차를 줄이기 어려움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하이테크를 접목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한류 등을 활용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산업을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
 - 소비수준 증가에 따라 고성능·소형·경량 제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 물적인 산업 대비 서비스 등 비물적인 측면이 중심을 이루는 소프트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 산업에는 주로 제 3차 산업이 속하나,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자체의 물적 투입에 대해 디자인이나 마케팅 투입 증가처럼 2차 산업에서도 소프트화가 강화되는 추세

-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거주하고 있고 연 8% 내외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
 -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제약, 가공식품, 화장품 등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적 및 지리적 이점으로 우리기업들의 시장 접근성도 매우 높음
- 원조사업,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약, 가공식품, 화장품 등 소프트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
 - 원조사업 및 문화지원 사업 등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음
 - 한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임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

□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부품, LED, 이차전지 등 부품산업 육성이 필요

- 과거 우리나라는 완제품 수출에 주력하여 핵심부품 개발에 소홀했으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산업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부품산업 육성은 필연적
- 조명,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되는 LED 및 이차전지 기술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선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야 함
- 중소기업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품분야의 육성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총괄, 제약]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항공기, 가공식품]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이차전지, LED]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화장품, 스마트그리드]

mihyelee@koreaexim.go.kr

<참고1> UNCTAD 1차 필터링 92개 품목

중분류	소분류	품목명	2013 교역규모 (천달러)	최근 3년 (2010-2013) 연평균 성장률
01 - 육류 및 육류 조제품	011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쇠고기	39,334,201	7.5%
	012	기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육 및 식용설육(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 및 설육 제외)	73,266,757	8.0%
02 - 낙농품 및 조란	022	우유·크림 및 유제품(버터 또는 치즈 제외)	51,016,693	12.7%
03 - 어류(해서포유류 제외),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과 이들의 조제품	034	어류[신선한 것(산 것인지 여부 불문), 냉장 또는 냉동한 것]	63,949,655	5.9%
04 - 곡물 및 곡물 조제품	041	밀(스펠트포함)과 메슬린.정미하 지 않은 것	51,543,698	13.9%
	044	옥수수	37,550,742	13.9%
	048	곡식가공품 및 곡분	50,998,844	9.3%
05 - 채소와 과일	054	채소,신선,냉장,냉동 또는 단순 히 저장한 것	67,349,423	5.9%
	057	과실 및 견과(기름용 견과 제외), 신선 또는 건조한 것	101,402,449	8.1%
07 -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이들의 제품	071	커피 및 커피대용품	35,556,454	6.3%
08 - 동물사료(도정 하지 않은 곡물 제외)	081	동물사료	86,106,979	11.3%
09 - 기타 조제식료품	09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제품 및 조제품	72,448,048	9.5%
11 - 음료	112	알콜성 음료	81,124,493	7.9%
22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	222	기름용씨및 식물성기름 추출용의 것	83,980,069	12.7%
24 - 코르크와 목재	248	간단히 가공한 나무 및 철도용 침목	41,856,518	6.0%
28 - 금속 광석 및 금속 스크랩	281	철광석 및 정광	164,354,931	7.5%
	283	동광석 및 정광 : 동매트 시멘 트동	55,853,124	5.6%
29 - 달리 명시되지 않은	292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식물 성 물질	39,659,019	8.0%

미가공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33 -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333	원유 및 역청질 광물원유	1,651,236,807	10.3%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960,782,512	14.6%
	33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액체 석유생산물 및 관련물질	54,785,428	12.1%
34 - 천연 가스 및 제조 가스	342	액화프로판 및 부탄	60,001,567	11.5%
	343	천연가스	391,109,507	15.7%
42 -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조유, 정제 또는 분획한 것)	421	연성불휘발성 식물성기름	38,777,774	10.5%
51 - 유기화학물	51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화수소 및 그 유도체	107,026,816	12.2%
	512	알콜, 페놀-알콜 및 그들의 할로겐화	67,335,804	9.3%
	516	기타 유기화합물	39,685,373	5.9%
52 - 무기화학물	522	무기화학원소, 산화물 및 할로겐염	63,272,541	5.5%
53 - 염색용·유연용 및 착색용 물질	533	안료, 페인트 니스 및 관련물질	60,281,415	5.3%
54 - 의약품 및 의료용품	541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	180,313,538	9.6%
55 - 정유, 레지노이드 및 향료물질 화장용품류, 광택제 및 세정조제품	553	향수 및 화장품, 화장용품(비누제외)	82,829,200	7.9%
	554	비누, 세척 및 광택제	42,247,872	6.1%
56 - 비료(소분류 272의 물품 제외)	562	비료(272항의 것 제외)	75,891,019	8.9%
57 - 원료형태의 플라스틱	57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	79,690,173	7.7%
	574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59,224,072	5.8%
	575	기타 플라스틱(일차제품의 것)	121,478,448	6.8%
58 -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582	플라스틱제의 판, 쉬이트, 필름, 박 및 스트립	102,377,444	5.6%
59 -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98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제품	132,344,455	5.3%
62 -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625	고무타이어, 호환성타이어 트레드, 타이어폴립 및 인너튜브	93,732,897	9.5%
	6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35,044,191	7.4%
63 - 코르크	634	단판, 합판, 파티클보드 및 달리 명	35,402,095	6.1%

제품 및 목제품(가구 제외)		시되지 않은 기타 가공목재		
64 - 종이와 판지 및 제지용 펄프, 종이 또는 판지제의 제품	642	종이 및 판지 크기로 재단한 것 및 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64,080,144	6.3%
65 - 방직용 섬유사, 직물 및 제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물품	651	섬유사	58,811,267	6.9%
	653	인조섬유직물	40,077,133	8.6%
	657	특수사, 직물 및 관련제품	44,094,004	5.9%
	65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주로 섬유물 질의 구성 제품	51,464,625	6.2%
66 -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非)금속 광물성 제품	663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제품	36,527,460	7.4%
	667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가공한 것)	157,948,755	7.0%
67 - 철강	676	철강봉, 앵글, 형강(쉬이트파일링포 함)	86,121,316	7.6%
	679	철강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프로 파일과 튜브	99,562,567	8.4%
69 -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691	달리 명시되지 않은 철강 및 알 루미늄의 구조물 및 구조물	55,931,054	9.3%
	694	철강, 동 또는 알루미늄제의 못, 나 사, 너트, 볼트, 리베트 및 유사제품	43,767,866	7.6%
	695	수공구 및 기계용공구	51,595,714	7.7%
	699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 제품	151,804,104	6.9%
71 - 발전용 기계 및 장비	7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연 피스톤 기관 및 동부분품	162,214,826	5.1%
	714	기관 및 모터, 비전기식: 달리 명시 되지 않은 기관	122,689,234	10.2%
	716	달리 명시되지 않은 회전전기장 치 및 그 부분품	99,164,608	5.9%
72 - 특수 산업용 기계	721	농업용 기계 및 그 부분품	39,283,153	11.4%
	723	토목공사용 장치	115,271,681	8.0%
73 - 금속가공기계	731	금속 또는 기타재료의 절삭방식 에 의한 가공공작기계	36,340,579	11.1%
74 -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1	가열 및 냉각장치, 달리 명시되 지 않은 동 부분품	118,531,264	6.8%
	742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68,457,087	7.8%
	743	액체용 이외의 펌프, 공기 또는 개스입축기 및 선풍기	135,704,210	7.5%
	744	기계식 취급장치 및 달리 명시되 지 않은 동 부분품	88,931,285	11.6%
	745	기타 비전기식 기계기기 및 장치	60,328,789	7.8%
	747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배트 등에 사용하는 탭	92,710,972	9.8%
	748	전동축	57,883,647	7.1%
76 -	764	달리 명시되지 않은 통신장비	630,333,266	8.3%

전기통신기기과 음성 녹음 및 재생 기기				
77 -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전기식 부분품[가정용 전기식 기기의 비전기식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포함]	772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261,326,401	7.6%
	7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122,161,769	8.4%
	775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기 및 비전기장비	104,150,445	5.1%
	77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232,942,347	5.3%
78 - 도로주행차량 (호버크래프트 포함)	781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679,460,829	6.9%
	78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140,629,174	8.4%
	78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도로주행차 량	44,029,001	12.7%
	784	722,781,782 및 783항 차량의 부 분품 및 부속품	375,816,768	8.4%
	785	자동이륜차 및 자전거(동력과 비 동력의 것),환자운반구	46,591,090	6.0%
79 - 기타 수송장비	792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	208,554,470	9.7%
81 -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 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813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42,194,835	11.3%
82 - 가구 및 그 부분품 침구, 매트리스, 매트리스 서포트, 쿠션 및 이와 유사한 속을 채운 물품	821	가구 및 그 부분품	157,980,726	5.9%
83 - 여행용품,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831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	61,026,308	11.1%
84 - 의류 및 의류 부속품	84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자켓	73,756,212	7.0%
	84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코트,케이프, 자켓,슈트 브레이저	49,224,164	7.3%
85 - 신발류	851	신발	128,272,202	7.8%
87 - 달리	87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의료용,외과	99,806,174	7.4%

명시되지 않은 전문기기, 과학기기 및 제어기기		용,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기기		
	8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측정,검사,분석 통제기구 및 장치	193,673,782	7.2%
88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용 기기, 비품 및 광학용품, 시계	884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학용품	60,390,772	6.1%
	885	휴대용시계 및 큰시계	51,842,412	12.2%
89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품	893	달리 명시되지않은 플라스틱제의 물품	147,841,080	6.8%
	897	신변장식용품. 금세공품과 은세 공품 및 기타의 귀석제품	95,017,497	10.7%
	899	달리 명시되지 않은 잡제품	89,039,291	6.2%
97 - 금(화폐용이 아닌 것, 금광과 그 정광 제외)	971	금(금광 및 그정광제외) ; 화폐 용이 아닌것	190,402,162	15.1%

<참고2> 제약산업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541			의약 및 의약품(소분류 542의 의약품 제외)	
	5411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 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함,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 포함)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부 불문, 소분류 542의 의약품 제외)	
		54112	비타민 A와 그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	2936.21
		54113	비타민 B와 그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	2936.22-.26
		54114	비타민 C와 그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	2936.27
		54115	비타민 E와 그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	2936.28
		54116	기타 비타민과 그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	2936.29
		54117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 포함)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 여부 불문)	2936.90
	5413		항생물질(소분류 542의 의약품 제외)	
		54131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그 유도체 그 염	2941.10
		54132	스트렙토마이신과 그 유도체 그 염	2941.20
		54133	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 그 염	2941.30
		54139	기타 항생물질	2941.40-.90
	5414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함)과 그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소분류 542의 의약품 제외)	
		54141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 염	2939.11, .19
		54142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 염	2939.20
		54143	카페인과 그 염	2939.30
		54144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1-.49
		54145	테오피린과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 및 그 유도체 그 염	2939.51, .59
		54146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그 염	2939.61-.69
		54149	기타 식물 알칼로이드와 그 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알칼로이드의 유도체 및 그 염	2939.91, .99
	5415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 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함)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 포함)	
	54153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29
	54154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19
	54155	카테콜라민 호르몬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31, .39
	54156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 류코트리엔과 그 유도체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50
	54159	기타	2937.40, .90
5416		글리코시드 선 또는 기타 기관과 그 추출물 면역혈청, 백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4161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함)와 그 염, 에테르, 에스테르 및 기타 유도체	2938.10, .90
	54162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함, 분상으로 된 것인지 여부 불문) 선 또는 기타 기관이나 이들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3001.20, .90
	54163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 인체 및 동물 의약품 백신	3002.10-.30
	54164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 제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002.90
5419		의료용품(의약품 제외)	
	54191	탈지면, 거즈, 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3005.10, .90
	54192	혈액형 분류용 시약	3006.20
	54193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3006.30
	54199	기타 의료용품 폐의료용품	3006.10, .40-.92

<참고3>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과 이들의 부분품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792			항공기 및 관련 장비 우주선(인공위성 포함)과 우주선 운반로켓 이들의 부분품	
	7921		헬리콥터	
		79211자중이 2,000kg 이하인 것	8802.11
		79215자중이 2,000kg을 초과하는 것	8802.12
	7922	7922	자중이 2,000kg 이하인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기계구동식인 것에 한함, 헬리콥터 제외)	8802.20
	7923	7923	자중이 2,000kg 초과, 15,000kg 이하인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기계구동식인 것에 한함, 헬리콥터 제외)	8802.30
	7924	7924	자중이 15,0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기계구동식인 것에 한함, 헬리콥터 제외)	8802.40
	7925	7925	우주선(인공위성 포함)과 우주선 운반로켓	8802.60
	7928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비행선, 기구, 글라이더 등 포함) 및 관련 장비	
		79283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29
		79284	기구와 비행선 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기타 무동력 항공기	8801.00
	792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소분류 792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에 한함, 타이어, 엔진 및 전기부품은 제외)	
		79291	프로펠러와 로터 및 그 부분품	8803.10
		79293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20
		79295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8803.30
		79297	소분류 792에 해당하는 물품의 기타 부분품	8803.90

<참고4> 항공기용 피스톤식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7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713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용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그 부분품	
		71311	불꽃점화식의 왕복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항공기용의 것)	8407.10
		71319	세세분류 71311에 해당하는 항공기용 엔진의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8409.10

<참고5> 가공식품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09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 제품 및 조제품	
	0981		균질화한 조제식료품	
		09811	균질화한 육 및 식용설육의 조제품	1602.10
		09812	균질화한 채소	2005.10
		09813	조리한 과일 조제품(균질화한 것)	2007.10
		09814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4.20
	0984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분·조분 및 조제한 겨자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09841	간장	2103.10
		09842	토마토 케찹과 기타 토마토 소스	2103.20
		09843	겨자의 분·조분 및 조제한 겨자	2103.30
		09844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209.00
		09849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2103.90
	0985	0985	수프와 브로드 및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2104.10
	0986	0986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함, 세세분류 54163의 백신 제외)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30
	0989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09891	파스타(조리했거나 속을 채운 것)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 여부 불문)	1902.20-.40
		0989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10.00
		09893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의 것,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40% 미만인 것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것) 또는 세세분류 02211 - 02232와 세분류 0224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코코아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1901.10
		09894	맥아엑스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인 것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또는 세세분류 02211 - 02232와 세분류 0224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코코아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1901.90
		09899	기타 조제식료품	2106.10, 90

<참고6> 화장품산업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553			조제향료,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비누 제외)	
	5531	5531	향수 및 화장수	3303.00
	5532	5532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 포함)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 큐어용 제품류	3304.10-.99
	5533	5533	두발용 제품류	3305.10-.90
	5534	5534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 포함) 치간 정결용 사(絲)로서 개별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덴탈 플로스)	3306.10-.90
	553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 및 기타 조제향료,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실내용 조제 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불문)	
		55351	면도용 제품류	3307.10
		55352	인체용 탈취제 및 지한제(땀억제제)	3307.20
		55353	가향한 목욕용 염과 기타 목욕용 제품류	3307.30
		55354	실내용 가향 또는 탈취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 포함)	3307.41, .49
		55359	탈모제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제향료,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3307.90

<참고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장치 세분류 품목 중 이차전지 관련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778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계	
	7781		배터리와 축전지 및 그 부분품	
		77812	축전지	8507.10-.80
		77813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8548.10, .90
		77819	축전지의 부분품	8507.90

<참고8> 달리 명시하지 않은 조명시설 및 조명기구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813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명 장치와 기구	
	8131		달리 명시되지 않은 램프 및 조명기구(서치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포함)	
		81311	산테리아 및 기타 천장용,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 제외)	9405.10
		81312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예: 건전지, 축전지, 자석발전기)(세세분류 77834의 조명기기 제외)	8513.10
		81313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 램프	9405.20
		8131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40
		81317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50
	8132	8132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0
	8138	8138	세세분류 81312에 해당하는 휴대용 전기램프의 부분품(축전지 제외)	851390
	813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부분품(세분류 8131와 세세분류 8132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	
		81391유리제의 것	9405.91
		81392플라스틱제의 것	9405.92
		81399기타	9405.99

<참고9>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장비 세분류 품목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설명	HS 2007
77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배전용 기기	
	7731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한 것 포함)전선, 케이블(동축케이블 포함) 및 기타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 불문)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함, 전기 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 불문)	
		77311	권선용 전선	8544.11, .19
		77312	동축케이블과 기타 동축 도체	8544.20
		77313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및 기타 와이어링 세트	8544.30
		77316	기타 전압이 1,000V 이하인 전기도체	8544.42, .49
		77317	기타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전기도체	8544.60
		77318	광섬유 케이블	8544.70
	7732		전기 절연용 기기	
		77322	유리제 애자	8546.10
		77323	도자제 애자	8546.20
		77324	애자(유리 또는 도자 이외 재료제의 것)	8546.90
		77326	전부 도자 재료로 구성된 전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 세세분류 77323의 애자 제외)	8547.10
		77328	전부 플라스틱 재료로 구성된 전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 포함, 세세분류 77324의 애자 제외)	8547.20
		77329	전부가 도자 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구성된 전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 포함, 세세분류 77322 또는 77324의 애자 제외) 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	8547.90

< 참고문헌 >

1. 김기봉 외 1명, “미 NIC 'Global Trends 2030'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2014
2. 김수범, “글로벌 화장품 시장동향 및 2012년도 경영성과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4. 2
3. 김지산, "세상을 밝힐 LED", 키움증권, 2013
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시장 수출확대전략 보고서 I, II”,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2015
5.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년 농식품 수출동향과 2015년 전망”,
aT get 한국편, 2015
6.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3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14
7. 박장서 외 17명,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조사”,
2013. 2
8. 배효길 외 2명, “세계 민간항공기시장 현황과 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2권 1호,
pp.81~91, 2014
9. 변완일,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2권 11호,
pp.64~72, 2014
10. 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4. 12
1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통계집 Vol. 1”, 식품의약품
안전처, 2014
12. 서건석 외 6명, “2014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보건산업진흥원, 2014. 12
13. 서건석 외 4인, “2014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보건산업진흥원, 2014
14. 신유원, “2014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성과 분석”, 보건산업진흥원, 2015. 6
15. 이상우, “송배전망 증설, 잇고 지내던 성장산업”, 유진투자증권, 2015. 3
16. 장태진, “세계 항공산업 현황과 전망”,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2권 1호, pp.41~52,
2014
17. 지목현, "중대형 이차전지 ESS로 성장 엔진 재점화", 메르츠증권, 2014
18. 최석 외 1명, “국내 항공부품산업 동향”,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2권 1호, pp.92~100,
2014
19. 최재현, “2015년 전선산업전망”, 한국기업평가, 2014. 12
20. 한국광기술원, "LED 기술개발 동향", 2013
21. 한국기업평가, “2015년 전선산업전망”, 2014. 12
22. 한국무역연구원, “Korean Made, 中시장에서 신통방통하라!”, 2014. 11
2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15년 전기산업 동향 및 전망”, 2014. 12
24.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주목받고 있는 국내 민항기 항공부품산업”, 항공우주 분
호, 2012

- 25. 한국 LED 보급협회, "LED 현황 및 전망", 2013
- 26. 황준호, "Mobile에서 Automobile까지", 대우증권, 2014
- 27. Frost&Sullivan, "World Primary Lithium Battery Market", 2014
- 28. Frost&Sullivan, "World Hybrid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2014
- 29. LEDinside, "LED Market Trend 2014", 2014